

100주년 D-3 years



남아있는 3개의 퍼즐조각처럼
동국 1세기역사도
3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춰지는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습니다.

기획광고

이제 조금만 오르면 정상입니다!

올해로 동국대학교가 개교 9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동국인의 꿈과 희망을 담고 달려온 97년,
21C를 이끌어갈 세계 속의 지식·과학 동국이 되어
다가오는 개교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본교의 개교 97주년을 축하합니다.

발전기금 060-700-0119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6, 7면 한총련 합법화 초읽기



최근 한총련 합법화와 수
배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
고 있다. 이에 한총련과 정
부 당국의 입장을 살펴보는
한편, 합법화에 대한 언론
보도 및 수배자들의 현실을
알아본다.

5면 기획④ 등록금 협상

본교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등록
금 협의체의 상에 대해 물었다.

12면 '주연'으로 거듭난 사투리

요즘 각종 매체를 휩쓸고 있는
사투리 열풍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업적 우수교원 선정
임기중 교수 외 3명

연구처(처장=여인형·화학)가 △인문계열=임기중(국어국문학) △자연계열=이동웅(생명공학과) △의약계열=남경수(의학과) △에·체능계열=한상일(국악과) 교수를 연구업적 우수교원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최근 3년간 연구업적평점이 600점이상이며 국내·국제 저명 학술지에 논문 5편 이상을 게재한 교수 중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수상식은 오는 7일 개교 기념식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공로패와 연구지원금이 지급된다.

사회분야는 지원자가 없어 수상을 선정하지 못했다.

음성인식 자동교환 시스템
오는 7일부터 시행

음성인식 자동교환 시스템이 오는 7일부터 시행해 교내 전화연결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이는 상담원이 통화·부재중일 경우 작동되며 안내받지 못하는 부서를 말하면 사용자의 음성을 통해 각 부서와 연구실에 직접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다. 또한 수신자가 통화 또는 부재중일 경우 음성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보관리실의 한 관계자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음성을 통해 바로 연결할 수 있어 훨씬 간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구부, 전국대회 출전
동의대와 오는 7일 첫 경기

본교 야구부(감독=한대화)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동대문야구장에서 진행되는 '제53회 전국종합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총 27개 대학이 참가해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본교는 오는 7일 오전 11시 30분 동의대와 첫 경기를 갖는다.

한편, 본교 농구부 최성우 감독과 이승현(체육3) 선수가 이상백배 한일대학 선발경기대회에 대표로 선발됐다.

97주년 개교기념식 오는 7일

90주년 기념문화관에서 ... 장기근속 교직원 표창

제97주년 개교기념식이 오는 7일 오전 11시 개교 90주년 기념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서정대 이사장, 흥기삼(국어국문학)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리는 개교기념식은 △삼귀의례 △국민의례 △발원문 봉독 △학교 연혁보고 △총장 기념사 △이사장 치사 △조계종 총무원장 축사 △총동창회장 축사 △교창장 수여 △우수연구업적 교원 시상 △공로상 수여 △교가제창 △사용서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표창장은 장기근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30년 근속 △20년 근속 △10년 근속으로 나눠 수여되며 수상자는 권기중(불교학) 교수와 김병수 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을 비롯한 38명이다.

장기근속 표창대상자

△30년 근속=권기중 김경제 김병수 김봉우
△20년 근속=이기동 박인국 동 철 김보환 조 은 김석용 이명훈

전서헌 박춘엽 신관호 박광호 유제동 최중우 지태한 △10년 근속=장애순 정성호 황홍성 김용기 박준상 박태준 박봉서 이관재 신동혁 김낙년 정창근 이승주 원치선 장연수 박상진 변기홍 이호용 박부권 안선신 이우영

공로상 수상자

유제동 유한림 박훈선 김윤희 지태한

'우리 총학생회' 출범식 열려

제35대 총학생회(회장=유영빈·경영4) 해오름식이 지난달 17일 만해광장에서 15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해오름식은 김성훈(광운대 총학생회장) 사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총학생회는 이날 학교측의 일방적인 등록금 책정을 비판하며 학생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총학생회는 올해 10대 과제를 발표했으며 유영빈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가 예년보다 늦게 출범한 만큼 더욱 발

로 뛰며 학생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도 △반전 평화 영상물 상영 △남북평화를 위한 촛불형상화 등 평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달 15일부터 4일 동안 진행된 해오름 주간에는 △야의



카페 및 동아리 공연 △한일전 야의 상영 등이 진행됐다.

대화가 원활한 학생 1명을 포함한 동일 전공 3명이 한 팀을 구성해 △참가지원서 △탐방계획서 △인터뷰 중계 계획서 △학업지도교수 탐방 계획 지도 확인서를 준비해 학생복지실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주제는 전공과 관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탐방계획과 연구활동과제를 제시해야한다.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결정되며, 탐방 후 결과보고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팀에게는 장학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해외탐방장학생 모집

미주·유럽 등 20팀 선발 ... 21일부터 접수

학생복지실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동국해외탐방장학생'을 모집한다.

해외탐방장학생은 학교에서 항공권과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아 오는 7월 7일부터 8월 22일 중 2주 동안 탐방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등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선발은 △미주(남미포함) 7팀 △유럽(호주포함) 7팀 △일본 3팀 △중국 및 아시아 3팀으로 총 20팀을 하며, 장학신청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평점 3.0이상의 모든 재학생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현지에서

보리수

사제동행

동양의 언덕 한 편에는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들이 지향해야 할 좌표를 세진 '사제동행(師弟同行)'이라는 비명이 있다.

사제동행이란 스승과 제자가 함께 연구하고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호 이해와 대화의 장을 확대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스승을 선지식(善知識, kalyanamitra)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본래 착하고 진실한 친구라는 의미가 있다. 이는 사제간의 관계가 위계적 상하 관계가 아닌 구도의 길을 함께 행하는 친구여야 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화엄경'에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스승으로서의 선지식의 특징을 비유로 들어, 자재로운 어머니, 보호해 주는 양육자, 피안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인도자, 번뇌의 병을 고쳐 주는 좋은 의사, 밝고 깨끗한 지혜의 악을 키워 주는 설산(雪山), 두려움을 막아주는 용장, 생사의 괴로운 바다를 건너주는 배사공과 같은 존재라고 설하고 있다.

스승은 제자의 능력과 관심사를 잘 알아 이에 알맞는 교육방법으로 제자를 성장시켜 주는 이다. 이를 종교적으로 말하면 잡된 영혼

을 일깨워 인간을 궁극적으로 변화시켜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제자도 스승에 대한 믿음과 존경,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진지한 노력과 인욕의 덕이 요청되는 것이다. 율장(律藏)에서는 '제지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된다'라고까지 가르치고 있으며, 불전에는 진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학생의 이야기가 무수히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진지한 구도 정신과 스승에 대한 믿음에서 진리의 등불은 전수되고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대학은 스승과 제자가 인격적으로 조우하는 심층적 만남의 장이다. 사제 관계마저도 시장경제적 만남으로 만들고 있는 교육풍토에서, "만남은 교육에 앞선다"는 오토 볼로노의 말은 새삼 신선한 메아리로 다가오고 있다.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껍질을 찢고 동시에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 줄 때 병아리가 세상에 태어나듯이, 사제가 동행하는 구도의 길은 아름다운 시절 인연을 성취케 할 것이다.

김용표
불교대학 불교학과

본사사령

- ◇ 임수습기자
- ▲ 강선화 (사과대1)
- ▲ 김지은 (사과대1)

본교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 현황과 과제

백주년사업, 이제부터 시작해야

구성원 참여·본교 특성 살린 사업 진행해야

'참사랑' 열린교육, 2006동국 백주년' 학내 자판기에서 뽑은 종이컵, 복사카드 등에서 흔히 접하는 문구지만 멀게 느껴져왔던 개교 1백주년이 이제 3년 앞으로 다가왔다.

개교 1백 주년은 단순히 숫자를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서 학교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업 현황=본교는 몇 년 전부터 개교 1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해오고 있다.

지난 2001년 10월 발족된 동대백년사 편찬간행위원회가 1백 년사를 정리하고, 총13권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전서의 원문을 각 페이지별로 입력하는 한국불교전서전산화 사업이 1997년 7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 밖에 △박영성 동문의 '7대륙 최고봉·3극점 도전' 사업 후임 △개교 1백주년 특장특적 기념 모금 등도 개교 1백 주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업은 새로 발족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를 주축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기념사업회가 그동안 대외협력처가 운영하던 기념사업을 체계적인 조직 하에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창선 기념사업회 본부장은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학생회는 2학기 공개토론회를 통해 개교 1백주년 사업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

이다. ▲과제=가장 중요한 것은 학내 구성원을 비롯해 재단과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백 주년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백주년 행사를 진행한 성균관대의 경우 로고를 학생들의 응모를 통해 결정하고, 1백주년을 2년 앞둔 고려대는 '열린음악회' 등을 진행해 구성원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물론 단기적인 이벤트 보다 그 의미를 지속시키나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성균관대가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통학위에복제작사업'을 펼치고 당시 제작한 전통예복을 입고 학위수여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본교의 특성을 반영한 모토를 정해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연세대가 '첨단, 이화여대가 '고등여성 교육의 장'이라는 이미지를 갖는 것은 1백주년 당시 각각 '미래·세계의 대학', '한국의 고등여성 교육과 미래의 세계'라는 모토에 맞는 학술회의 등을 일관성있게 진행한 것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 흥기삼 총장은 취임과 함께 "동국의 시계를 개교 1백 주년이 되는 2006년에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진행될 1백주년 기념사업은 학내·외 모든 구성원들의 활발한 의견수렴을 통해 전 동국인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한총련 관련 양심수 대거 사면·복권

수배해제는 이뤄지지 않아

한총련 관련 양심수가 지난달 29일 대거 사면·복권됐다.

이번 사면·복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것으로 손준혁 6기 한총련 의장을 포함한 5명의 한총련 관련 수감자가 출소됐으며

360여명이 복권됐다.

하지만 사면과 함께 관심이 모아졌던 한총련 수배자들의 수배해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다수 음달인 지난달 30일 박제민 13기 서총련 의장이 연행된 데 이어, 지난

2일과 3일에는 각각 조선·전남대학교의 한총련 수배자가 연행돼 한총련에 대해 "법대로 처리"한다는 겸·경찰의 강경 원칙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에 석방된 양심수 10명은 지난 1일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4.30 사면조치 석방자 기자회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양심수 전원 해방에 대한 후속 사면조치 단행 △한총련 수배자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한총련은 지난달 14일 정재욱 연세대 총학생회장이 11기 의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공식적인 합법화 움직임에 돌입했다. 정재욱 의장은 당선 후 "한총련의 발전적 해소를 통한 새로운 학생운동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언어연구교육원 봄학기 특강

EVENT> 선착순 20명 예보 보조 가방 증정!!

	영어회화	Me & My life 1 (초급)	Me & My life 2 (중급)	Writing & Speaking	Interview English	CBT TOEFL	TOEIC 기본
강의 시간	8:00-9:00 초급/중급	17:00-18:30	17:00-18:30	8:00-9:00 17:00-18:00	8:00-9:00	17:00-18:00	9:00-10:00
정원	15명	15명	15명	15명	15명	40명	40명
교수	초빙교수 (Native Speaker)	David Green	Ivon Katz	Kerry (영,목) Mary-Ann (영,화,수,목)	Modesto Tumacder	오금동	강민건
수강료	8만원	8만5천원	8만5천원	10만원	9만원	11만원	9만원
강의 기간	2003년 5월 12일(월) ~ 6월 16일(월) : 5주 / 월 ~ 목 : 주 4일 수업 접수기간: 5월 9일 까지(선착순 마감)						
문의 및 접수	위치 : 동국대학교 해화관(G) 1층, 문의전화: 2260-3470~1 E-MAIL : today@dongguk.edu homepage: http://today.dgu.ac.kr 근무시간 : 오전 9:00~오후 5:00 (점심시간 12:00~1:00)						

- 수강생 특혜
1. 특강 수강 시 무료 웹토익 수강 기회
 2. 모의 토익 테스트 무료 응시 혜택
 2. 2과목 동시 수강 시 1만원 할인
 4. 교재 무료 제공
 5. 100%출석자 다음 차수(여름방학 1차) 특강 수강료 10%할인

◆ Web TOEIC 인내-6주 과정 (특강 수강생은 무료)

-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 접속으로 원하는 과정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법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과정별로 Intro, L/C, Grammar, R/C 의 각 20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수강료: 15,000원(온라인 입금), 예금주: 언어연구교육원, 계: The Center for Language Research & Instruction
http://today.dgu.ac.kr
- ☎과번호: 조흥은행 371-04-392858
- 4월 21일 시작 반 (18일까지 접수) / 6월 2일 시작 반 (접수: 5월 19일~ 6월 2일) (교재 무료 제공)

동국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The Center for Language Research and Instruction

2003학년도 파견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선발계획

1. 파견기간 : 2003. 9. ~ 2004. 8. (1년)
2. 해당대학별 선발인원 및 지원자격

해당국	해당대학	선발인원	지원자격
미 국	미시간주립대학 (Michigan State Univ.)	5	학부과정 3학년 1학기(5학기)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까지의 뉴계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며, TOEFL 550점(CBT 213점) 이상 취득한 자
	생휴스턴주립대학 (Sam Houston state Univ.)	5	
	노던주립대학 (Northern State Univ.)	5	

- ※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는 지원이 불가함.
- 3. 수확조건
가. 본교측 : 파견기간 중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해야 하며, 본교 장학금 선발규정에 의거하여 해당학기 등록금의 36%는 장학금으로서 감면함.
나. 해당대학측

해당대학	경비부담	비 고
미시간주립대학 (Michigan State Univ.)	수업료 및 체재비: 본인부담	세부 경비내역은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임
생휴스턴주립대학 (Sam Houston state Univ.)	수업료 및 체재비: 본인부담	
노던주립대학 (Northern State Univ.)	수업료: 면제 체재비: 본인부담	

- ※ 웹사이트 : MSU(www.msu.edu), SHSU(www.shsu.edu), NSU(www.northern.edu)
- 4. 학점인정 : 파견기간중에 취득한 교과목의 명칭·학점·성적은 최대한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수 구분 등 동일한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학과 심의를 거쳐 학과 주임교수가 결정하며, 학점인정 범위는 해당학과 졸업학점의 1/4까지로 함.
- 5. 전형방식 : 학부과정 성적평가가 50%·면접평가가 50%
- 6. 신청서류
가.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재학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다. TOEFL 성적표 1부
- 7. 전형일정
가. 원서교부·접수 : 2003. 4. 21(월) ~ 5. 14(수), 국제교류실
나. 면접 : 2003. 5. 16(금) 14:00~ , 국제교류실
다. 선정자 발표 : 2003. 5. 20(화) 이후 개별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실 ☎02-2260-3876, 본관 2층)로 문의 바랍니다.

언 구 처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나는 지금 한국문학의 태백산맥으로 간다

41회

1. 응모부문 및 제출원수
· 시·시조 : 2편 ~ 3편
· 소설 : 1편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 수필 : 1편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 응모 및 심사 : 주제에 상관없이 본인의 순수 창작 작품을 우선으로 응모하면 심사를 거쳐 본선 참가 대상자를 선발하여 학교로 통보합니다. 본선 참가자는 6월 14일(토) 10시 본교에서 열리는 백일장에서 주어진 주제로 작품을 작성하여 원문을 필히 제출합니다.
3. 시상 : 각 부문별로 장원 1명, 차상 1명, 차하 2명에게 상장 및 부상을 지급하며, 본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선시에는 본교로 작품권이 귀속됩니다.
4. 장학금 지급
· 장원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2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 차상 수상자가 본교 문예창작학과 및 인문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1년간 등록금의 30% 면제
· 3위(차하) 이내 입상자는 본교 입학시험에 문학특기자 응시자격 부여
· 본교 재학 중 문단에 등단하거나 문예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졸업식까지 소정의 장학금 지급
5. 작품제출기간 : 2003년 5월 5일 ~ 5월 20일까지 (당일 도착분에 한함. 직접접수 가능)
6. 작품제출처 :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및 동대신문사
7. 주의사항 : 응모작품은 원고지나 A4용지에만 작성하고, 문예창작학과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mail 및 Fax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문예창작학과 홈페이지(http://www.dguilit.net)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02) 2260-8773
동대신문사 (02) 2260-3491~2

회전무대

공동추천

○...지난주 팔정도는 수십명의 학생들에게 때아닌 점거(?)를 당했다는데.

알아보니 같은 시간에 두 행사가 중복돼 먼저 시작된 행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학생들이었다고.

팔정도의 경우 많은 행사가 열리는 만큼 사전에 이용신청을 해 중복을 막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빨리 잡는다(!?)"

전시품

○...요즘 동국관 1층 BSC에 있는 컴퓨터는 진열품일 경우가 많다는데.

알아보니 BSC 관리 조교와 정보관리실 직원들이 컴퓨터 수리를 서로 미뤄 약 30대의 컴퓨터가 3주 이상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이라고.

평소 컴퓨터 수가 부족한 만큼 관리자들의 책임성 부족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고장난 컴퓨터, 관리자의 책임회피 때문에 재기에 실패하다(!?)"

뒷북

○...지난 시험기간 동안 개방된 강의실이 유명무실했다는데.

알아보니 시험기간이 시작된 지 몇 일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강의실 개방이 이뤄진 것이라고.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이용 또한 저조할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학점 잃고 강의실 이용하기(!?)"

공용 화장실

○...동약에는 남학생들의 인권 사각지대(?)가 있다는데.

알아보니 화장실을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하기 위해 수시로 출입하는 것이라고.

청소 소요시간이 짧은 만큼 '청소중'이라는 팻말 등을 통해 청소하는 사실을 알리고 시작하는 것은 어떨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용무 해결과 함께 인권도 버려야 한다(!?)"

등록금 논의 마무리

등록금 8% 인상·예산 일부 항목 회계년도 중 공개 등 합의

학교측과 총학생회(회장=유영빈·경영4)가 등록금 인상률·예산 공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올해 등록금 관련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2003학년도 등록금 8% 인상 △납부 금액 중 2% 5월중 환원 △등록금 인상분 중 1% 장학기금 등 복지에 사용 △예산 일부 항목 회계연도 중 공개이다. 그러나 그동안 논의된 등록금 책정에 대한 학생참여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현(아간 경영

4) 부총학생회장은 "학교측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학부제 관련 진행사항 공개 및 토론 △구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논의 시 학생참여 보장 △대학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양측의 합의는 총학생회의 △등록금 등 학내사안 협의에 학생참여 보장 △예·결산내역 투명 공개 등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번 합의로 등록금 납부 거부 운동

을 진행해온 학생대표들은 지난 21일 납부거부를 철회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열린 2003년 정기 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등록금과 관련한 학교측의 회신을 비롯해 △대동제 사업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유영빈 부총학생회장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했던 메신저 토크와 같이 온라인에서도 학우들과 자주 만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동제와 관련해 △좋은 수업 만들기 △새내기 농구대회 △과·학생회실 꾸미기 대회 등을 진

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예정된 총학생회 간부인준과 추천은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해 총학생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총학생회는 이번주 내로 △학자합의안 지속적 이행 △각 단과대 교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총학생회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적으로 활동할 전망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지난 30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불교도주관을 기념한 차 한잔의 여유 ... 차보기 행사가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담소를 나누며 차 한잔의 여유를 즐겼다. > 관련기사 11면(문화)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총대 특별감사 결과 발표

총학생회 예산정지 2주 징계 등

총대의원회(의장=임수옥·화공4)가 지난달 4일부터 진행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 > 참조 이번 감사에서 제35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칙 5개항을 위반해 예산정지 6주 징계를 받았으나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오는 12일까지 예산집행이 중단되며 35대 총

학생회 비대위는 오늘(5일)부터 열흘 동안 각 건물에 사과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또한 공대는 제출자료가 부족해 다음주 다시 감사를 진행한다. 한편, 새터부정기 감사는 오는 7일까지 진행되며 사과대·생자대·법대·예술대는 새터 식중독문제가 마무리된 후 오는 6월 상반기 감사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징계내용	단위	세칙조항 및 징계사유
경고	생자대	24조 1-6항 집행부서장 지역할 수행 못함 24조 1-1항 교지출판비 영수증 미제출
엄중 경고	교지편집위원회	1-3항 사업계획서 및 평가서 내용 미비 금전출납부 작성 불량
예산 정지 2주	총학생회	24조 1-1항 선전국 사업계획서, 평가서 미제출 1-2항 감사자료 제출시한초과 1-3항 1, 2월 전체사업평가 미비 3-1항 금전출납부와 실제금액 오차 발생

공공성·서열화 제고해야

'새 정부의 대학교육 개혁과제' 토론회 열려

교육개혁이 확정된 이후 노무현 정권의 교육정책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대학교육 개혁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됐다.

한국기자협회 대학언론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서열화 및 지방대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김용일(한국해양대학교)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분야 전문위원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요구대로 대학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근시안적 대책이라며 "공적자금의 비율을 늘리는 등 공공성 제고를 통해 대학교육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각종 평가를 통해 재정을 차등 지원한 것은 대학의 서열구조를 고착화시킬 뿐"이라며 "이제 지방대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보론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지방대 문제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박준수(총주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대학본부 대표는 산업대 지인달 30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됐다.

한기기자협회 대학언론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서열화 및 지방대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김용일(한국해양대학교)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분야 전문위원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요구대로 대학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근시안적 대책이라며 "공적자금의 비율을 늘리는 등 공공성 제고를 통해 대학교육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보론에서 대부분의

4·19 등반대회 열려

4·19 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제34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지난 18일 북한산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교수·직원·학생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진달래 능선을 지나 대동문, 보국문, 대서

문에서 북한산성 매표소 앞 주차장까지 내려오는 코스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홍기삼(국어국문학) 총장은 "4·19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구성원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기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 날 폐회식과 시상식은 폭우로 인해 취소됐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스승의 날 맞이행사 '은사에게 편지·선물보내기'

학생복지실이 스승의 날을 맞아 '은사에게 감사의 편지와 선물 보내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초·중·고등학교 재학 당시 선생님께서 보낸 편지와 재직학교 주소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마련한 선물과 함께 해당 교사에게 발송하는 것이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학생복지실에서 가능하며 소포는 13일 발송될 예정이다.

생협, 무료배식 실시 개교기념 맞아 오는 7일

생활협동조합(이사장=유덕기·생명자연산업유통학)이 개교 97주년을 맞아 오는 7일 무료배식을 실시한다.

제공되는 음식은 잔치국수와 떡이며, 배식장소는 △상록원 학생식당 △동국관 학생식당 △원흥관 아리수 매점이다.

이날 아리수의 분식코너는 운영하지 않는다.

축구한마당 개최 졸준위 홈페이지 통해 접수

졸업준비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학생자치기구가 '축구한마당'을 개최한다.

△졸업준비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 △교지편집위원회 △동아리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축구대회는 학부생으로 구성된 선착순 24개팀의 신청을 받고 팀당 △선수 19명 △부심 1명을 등록해야 한다.

대회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본교 대운동장에서 24강 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되며 출전회비는 1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졸준위 홈페이지(http://www.dongguk.ne.kr)를 통해 가능하다.

대우일렉트론스 설명회 현장 원서접수 가능

대우 일렉트론스 채용설명회가 내일(6일) 오후 2시 중앙당에서 열린다.

1년에 2차례 열리는 채용 설명회는 인사관계자가 참석해 △기업홍보 △동문과의 대화 △진로계획 및 현실적 취업전략 수립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현장에서 하반기 공채 원서접수도 가능하며 이번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20%의 가산점

이 부여된다.

직무적성검사 실시 오는 9일부터 접수

학생상담센터와 졸업준비위원회가 취업대비 직무적성검사 접수를 오는 9일부터 6일간 받는다.

매일경제신문사가 실시하는 이번 검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며 △14일=오후 3시·오후 5시 30분 학림관 소강당 △15일=오후 3시 동국관 1501에서 진행된다.

접수비는 2000원이며 검사 결과와 해석은 무료다.

대동제 카페 개설 학생의견 수렴·논의

총학생회가 대동제 행사와 관련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카페(http://cafe.daum.net/peacetival)를 임시로 개설했다.

이번 카페 개설은 대동제 사업의 하나인 좋은 수업만들기에 대한 의견과 함께 전반적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선임(국교4) 학자투위원장은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이 의견을 보다 편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 오는 13일부터 3일간

2003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이 오는 13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개설대상 교과목은 △2003학년도 1학기 개설교과목 △2학기 개설예정 교과목 △계절학기 교과목 중 강좌개설오전 충족 교과목으로, 6학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단기강좌로는 △수영 △골프 △산사의 생활이 개설될 예정이다.

수업은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된다.

봉투법요식 열려 오는 8일 정각원에서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이 오는 8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오전 8시 30분 봉투법요식을 진행한다.

이번 법요식은 △삼귀의 △찬불가 △이사장 봉투법어 △총장 봉투사 △사홍서원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헌혈봉사활동 참가 안내

1998년 이후부터 경기 서북부지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말라리아(역질) 등의 요인으로 이 지역 군장병들의 헌혈참여가 전연 유보되고 있어 혈액이 너무도 부족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동국참사랑봉사단과 RCY헌혈봉사회에서는 수혈이 필요한 이웃에게 생명의 사랑을 나누고, 멸종수입에 쓰이는 외화를 줄이기 위한 「사랑할진 헌혈」운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동국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 일 시 : 2003.5.6(화)/5.7(수)/5.9(금) 09:00~17:00
- 2. 장 소 : 도서관 앞

* 헌혈하신분들에게는 건강증진과 성인병 예방의 일환으로 혈액으로 검진할 수 있는 검사결과를 본인에게 15일 내로 개별 통보하여 드리며, 수혈이 필요할 경우 동국참사랑봉사단과 헌혈봉사회에 연락주시면 즉시 헌혈증서를 드립니다.

- 검사내용
 - B형, C형 간염항체검사
 - 간기능 검사
 - 요소질소검사
 - 콜레스테롤검사
 - 흉단백질 및 알부민 검사

* 참고사항 : 동국참사랑봉사단에서는 2003학년도 봉투기(3월)부터 헌혈 봉사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이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합니다.

■ 헌혈 1회당 : 봉사활동 10시간 인정 (단, 헌혈봉사는 사회봉사 학점 이수 시간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며, 재학기간 중 봉사활동 시간으로 30시간까지만 인정가능함)

* 특전 : 사회봉사 인증서발급/훈장수여/성적우수 장학금 선발시 시간 인정/ 우수봉사자 포상 및 장학금 지급

■ 연중 교내 헌혈캠페인 일정 : 3월, 5월, 9월, 11월중

동국참사랑 봉사단

2003년 동국대학교 새내기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1. 일 시 : 2003년 5월 10일 (토) 09:30 ~ 17:00

2. 장 소 : 북한산 아카데미하우스

3. 대 상 : 동국대학교 03학번 새내기 (참가를 희망하는 새내기는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9:30까지 북한산 아카데미하우스 입구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 ▶ 일 정
 - 09:30 북한산 입구 집합
 - 10:00 개회사-시제 발표
 - 10:00~14:00 백일장 및 점심식사
 - 14:00~14:30 특별 강연(선배 문인 선생님 중에서)
 - 14:30~17:00 시상식(심사관, 수상자 낭독) 및 다과회(참석하신 선배님들과)
 - 17:00 폐회

▶ 찾아오는 길
-4호선 수유역 1번 출구 => 마을 버스 1번 => 종점 하차 (북한산 아카데미하우스)

국어국문학과 · 문예창작학과 학생회

2003학년도 제1학기 명사초청특강 왜곡된 性文化와 性産業의 실태

- 1. 일 시 : 2003. 5. 26.(월) 14:00~16:00
- 2. 장 소 : 학림관 소강당
- 3. 강 사 : 김 강 자 총경

◇ 주요 약력 ◇

-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 서울시장 성폭력상담실장 역임
- ▶ 대한민국 여성1호 경찰서장 역임(육천경찰서장)
- ▶ 서울 중앙경찰서장 역임
- ▶ 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 ▶ 현 한남대학교 여성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

◇ 주요 저서 ◇

- ▶ 나는 대한민국 경찰이다(2000, 푸른 숲)

◇ 수상 경력 ◇

- ▶ 제16회 올해의 여성상(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00년)
- ▶ 모범사회활동대상자(SBS문화재단-청소년선도부문, 2000년)
- ▶ 제1회 공무원인권상(국제연세스티 한국지부, 2000년)
- ▶ 한국네트즌이 뽑은 2001년 한국최고의 여성상(2001년)
- ▶ 훈장(정부), 근정포장(대통령), 녹조근정훈장(대통령) 등 각종 훈·포장 수여

학 생 처 · 여 학 생 실

『1학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고민 해결, 함께 해요!

집단상담은 비슷한 고민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소규모로 모여, 내만의 자신을 만나 고민을 해결하고, 함께 한 친구들을 이해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만남의 장입니다.

◆ 집단 소개

집 단 명(리더)	참가대상	일 시
진로탐색 집단 (김수리, 한국청소년상담원)	자신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해 생각이 많거나 자신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원하는 2, 3학년 동국인	매주 수 3-5시
자기표현향상 집단 (권숙경, 리파시상담연구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표현하거나 전달하지 못하는 동국인	매주 금 3-5시

◆ 집단상담 기간 및 횟수

4월 29일~5월 30일까지, 매주 수·금, 각 집단별 5주 5회 진행

◆ 접수 및 문의

학생상담센터 (본관 2층, 구내전화 3931, 3930), 각 집단별 선착순 10명

학 생 상 담 센 터

동약문

‘등투’ 미아



“등록금 납부거부 운동 계속 진행중이죠?” “철화했는데요. 오늘 대표자들도 전원 납부했어요.”

“네?” 지난달 21일 불교대 K군은 경영대 학생회장과의 대화를 통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됐다. 자신이 참여했던 등록금 납부거부 운동이 임원회 있는 동안에 철회된 것이다. 마지막까지 납부거부 운동을 펼치던 학생 대표자들은 전원 납부한 상태였고 그에게는 더 이상 등록금을 낼 여지가 없었다.

어떻게 K군만 혼자 ‘납부거부’ 일이 발생했을까. 그가 개인사정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무도 그에게 철회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간단하게 느껴지지만 여기에는 K군에게 연락할 책임이 있었던 단원들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가 감춰져 있다. 먼저 총학생회는 “4월 초부터 일반 학생들에게 납부거부를 철회하라는 공고를 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K군은 불교대 학생회에 “납부거부에 끝까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를 총학생회에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불교대 학생회는 이 사실을 총학생회에 전달하지 못했던 것이다.

만약 불교대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단과대에서 파악중인 거부자의 경우 단과대가 개별적으로 연락한다”는 것만 지켜어도 이러한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총학생회의 ‘등록금투쟁 마무리’가 세심하지 못했던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총학생회는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일부 학생들에게만 철회사실에 대해 개별적인 연락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총학생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K군이 한 학기 휴학처리 되는 것에서 일단락 됐다. 그러나 등록금투쟁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는 한 단 명의 학생이라도 회생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학생들이 학생회를 믿고 등록금투쟁에 참여할 것이 아닌가.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외국인 노동자센터 현장리포

외국인 노동자, 노동은 하되 권리는 없다



안산 외국인 노동자센터에서 상담중인 라주와 하산.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총 40만 명. 그 중 80%가 불법체류자로, 이들을 둘러싼 각종 인권침해는 이미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각종 비리를 없애기 위해 산업연수생제도를 축소하고 고용허가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 또한 팽팽하다.

이에 노동절을 1주일 앞둔 지난 27일 안산외국인노동자 센터를 찾아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이하 센터)가 위치한 원곡동은 이국적인 모습이다. 지하철 역사 앞 광장에는 거무스레한 피부를 가진 이들이 삼삼오오 몰려다니고 한 쪽에서는 중국어도 간간이 들려온다. 원곡동의 또 다른 이름은 ‘국경 없는 마을’. 주민 4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 각 국의 외국인 노동자이다.

“여기 오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집 같잖아요.”

지난 27일 원곡동 센터 앞에서 만난 라주 씨(방글라데시·31). 연수업체에서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후 일요일마다 이곳을 찾는 이들 중 하나다.

오늘은 친구 하산(방글라데시·31)과 함께 센터를 찾았다. 서툰 한국어로 “사장에게 돈 받고 싶어요”라고 말하던 그의 거무스레하고 두툽한 손에는 낯선 언어로 빼곡한 종이 쪽지가 꼭 쥐어져 있었다. 얇고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은 그가 정당한 노동을 했음을 나타내는 유일한 ‘증거’다.

하산 씨처럼 회사로부터 밀린 월급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센터를 찾는 이들은 출잡아 700여명. 요즘은 센터를 처음 찾는 사람만 매주 50여명씩 늘고 있으니 이 숫자도 몇 주 후면 훨씬 늘어날 것이다.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사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애초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급속도로 생기기 시작한 때는 이른바 ‘코리아 드림’의 열풍이 불던 1989년 즈음, 즉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져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던 시기이다. 이 때 몰려온 중국과 동남아시아 및 남부아시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실 거의 모두가 불법체류자였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할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이하 연수생제도)는 바로 그 즈음, 1991년에 도입됐다. 중소기업협회를 통해 ‘수입’된 외국인 노동자가 중소기업협회(이하 중기협)가 정한 업체에서 숙식을 제공받은 뒤 1년 연수를 거쳐 2년 동안 노동자로 일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른 지금, ‘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 대부분은 한국사회에서 불법체류 노동자가 되었다.

불법체류의 유혹

“육아, 사장에 못 받은 돈이 400만원은 넘으니까 진정서 제출해서 꼭 받아내야 해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은 50만원만 받던데...”

연변에서 입국해 지난 3월까지 의류관련 중견기업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일하던 조선숙 왕육아 양(조선족·25). 센터의 상담원이 계산한 자신의 체불임금 액수가 믿기 어려운지 자꾸 되묻는다. 6개월 간 받지 못한 월급과 하루 3시간씩의 초과노동 수당은 그녀에게 꽤 커다란 ‘목돈’이었던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단체들은 연수생이 업체를 이탈하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되는 약점 때문에 연수업체가 이들을 마음대로 ‘요리’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미리 적금을 들여주겠다고 월급이나 숙식비를 가로채는 것이나 사장이 직접 연수생들의 여권을 관리해 발을 묶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공단에서는 이미 흔한 수법이다.

때문에 연수생들은 이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불법체류자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비록 불안하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원칙·임금전액지불 원칙은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오히려 연수생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불법체류자들이 더 많다. 40만 명의 외국인노동자 중 불법체류자가 80%에 육박

하는 것도 이러한 ‘불법체류의 유혹’ 때문이다.

올해 3월 초 정부에서는 10여 년 만에 또 다른 외국인노동자 관리제도를 내놓았다. 연수생과 연수업체를 민간기업이 관리해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가 생기기 쉬운 연수생제도 대신 △공공기관 직접 관리 △노동관계법 적용,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 노동자와 똑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연수생을 주물러온 중기협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과 함께 연수생제도 일부실시”로 돌아선 상태다.

고용허가제의 의미

센터에서도 정부의 고용허가제 추진이 화제 거리였다. 앞서 왕 씨의 체불임금 요구 진정서를 작성하던 한 상담원의 ‘고용허가제 도입론’은 들어볼 만 하다.

“연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데려와 놓고 상식 이하의 조건에서 ‘노동’하게 하는 건 기만이지요. 그나마 고용허가제는 정직하게 ‘노동자’로 외국인들을 데려오는 것 아닙니까.”

고용허가제 역시 외국인 노동자에게 업체를 옮길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출발점이 되리라는 분석이다.

지난 27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한 칸. 삼삼오오 모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적은 중국, 러시아,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이들이 손짓과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국의 어느 자원봉사자가 말한다.

“지금 여기가 ‘세계’이고, ‘동북아’ 아닐까”

한국인들이 항상 소망해마지 않는 세계화.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 동북아 중심국가. 정말 이루고 싶다면 지금 당장 외국인 노동자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3자회담과 한국’ 포럼

가장 확실한 열쇠는 ‘남북협력’



지난달 30일 진행된 북한포럼.

지난달 30일 다함관 세미나실에서 ‘북핵 3자 회담과 한국’을 주제로 한 분교 북한학연구소 제6차 정기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강성운 교수(북한학)의 사회로 통일연구소 전현준 연구원, 고려대 남성욱 교수(북한학)의 발제와 김남식 박사, 북한학과 교수인 박순성 교수를 비롯한 북한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포럼의 주제는 △3자 회담 성과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

북핵 위기국면은 반전될 것인가.

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한 베이징 3자 회담에서 북한이 핵 협상 카드로 제시한 이른바 ‘새롭고 대담한 제안’을 두고 국제사회가 떠들썩하다. 이러한 가운데

할로, 대체로 낙관론과 비관론 혹은 현실주의적 전망과 전향적 전망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첫 발제자로 나선 통일연구소 전현준 연구원은 베이징 3자 회담에 대해 “북한 핵 보유 인정이라는 ‘혹’만 붙었다”며 북미의 태도변화에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에 남성욱 교수는 북한의 이번 제안이 ‘선 전체·후 협상’이 아닌 ‘동시개선’이라는 점, 총체적인 이정표라는 점을 들어 회담의 성과를 높이 샀다. 또한 “한국은 성급히 핵협상에 직접 참여하려하기 보다는 북한과 미국의 양자간 대화의 틀을 먼저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핵문제는 북미간 협상으로, 경제협력교류는 남북협상으로 나누어 진행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남식 박사는 토론시간을 통해 북미 모순과 남북 모순을 분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즉 핵 위기의 핵심은 북미간 모순이므로 북미간에 직접 해결하고, 남북모순은 6.15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직접 풀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30일 마무리된 남북장관급회담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열렸기 때문에 핵 위기보다 6·15 정신 계승이 강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고향 중의 고향 동국대학교

● 기금종류

- 발전기금 · 불교종합병원건립기금
· 제3캠퍼스건립기금
· 특정목적기금(학과, 연구소 및 각종 행사지원금)
· 장학기금
· 수증물품(연구기자재, 부동산, 미술품, 수목 등 환금성물품)

● 기금용도

- 교육시설 확충/ 불교종합병원 건립/연구 및 실습기자재 구입
/ 도서관 장서 구입/ 국가고시 육성후원 등

● 동국사랑기금통 갖기운동

- 저금통이 필요하신 분이나 저금통을 가득 채운 분께서는 해외협력처 발전기금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방법

- 일시납 및 월납, 분납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특정용도를 지정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법인명, 단체명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동국대학교 해외협력처 발전기금팀(본관 4층)
Tel : (02)2260-3300, 3794-5 Fax : (02)2260-3796
http://www.dongguk.edu

최후로 생각할 것을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최후로 책임질 것을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교여
우리 고향 중의 고향이어...

미당 서정주의
‘우리 고향 중의 고향이어...’ 중



발전기금 납부가 더욱 편리해 졌습니다

자동이체(CMS)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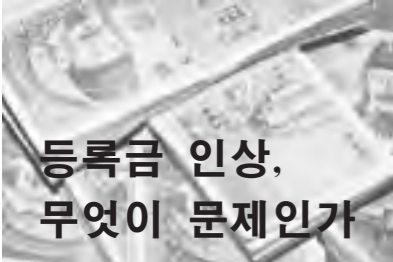
- CMS란
- 금융결제원을 통해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일정액이 학교계좌로 자동출금되는 새로운 자동이체 제도
- 전화신청만으로도 발전기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이체시 전국 어디서나 수수료가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또는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여 해외협력처로 제출
* 필요한 사항 : 주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약정액, 월납입액
· 종류(월납입액 기준) :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기타(20만원이내)
· 요양사항 : 결제일(1일, 18일)에 앞서 출금 잔액을 미리 확인바랍니다.
· 우체국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금 접수 ARS 안내

- 하루 한번, 전화 1통화로 동국사람을 실천합니다.
· 번호 : 060-7000-119
· 금액 : 전화 1통화에 5,000원(1일 중복통화는 1회만 인정)

기타납부방법

- 무통장 입금 (예금주: 동국대학교)
조흥은행 313-03-002943 국민은행 068-01-0373-353 외환은행 065-13-19061-0
제일은행 107-10-119210 주택은행 491001-93-200472 한빛은행 064-032276-01-004
신한은행 216-05-005036 우체국 012328-01-001567
· 지로이용 : 지로번호 7606368, 학교로 지로용지를 요청하거나 은행에 비치된 용지 이용
· 방문접수 : 해외협력처 발전기금팀(본관 4층) 직접방문



등록금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 1. 수입현황
2. 지출현황
3. 등록금 인상근거 분석
4. 등록금 협상

등록금 협의기구 관련 설문결과 분석

응답자 45%, 협의기구 구성해야

구체적 '모델' 모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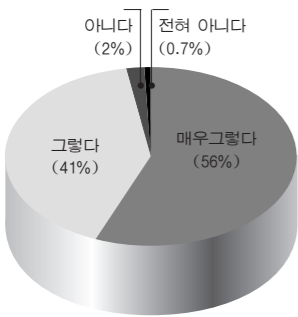
해마다 거르지 않고 등장하는 학교와 학생회 측의 '줄다리기' 공방의 난세, 등록금. 매년 초 학생회와 학교가 등록금 인상율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등록금 협상'은 항상 풀리지 않는 과제다.

'등록금책임협의회(이하 등책협)'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고, 전임총장과 전년도 총학생회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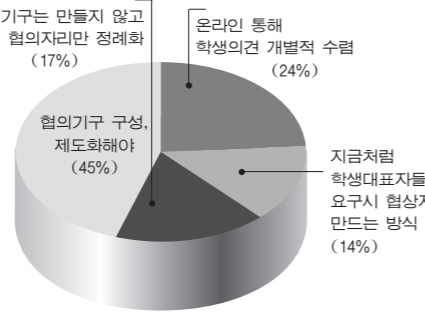
그렇다면, 본교 학생들은 현재의 등록금 책정 과정과 등록금 협의기구 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주 본사는 18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현재 본교의 재정 운영 및 등록금 책정 과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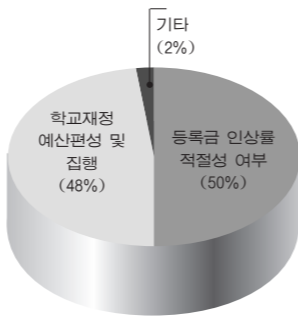
●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학생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바람직한 의견수렴 방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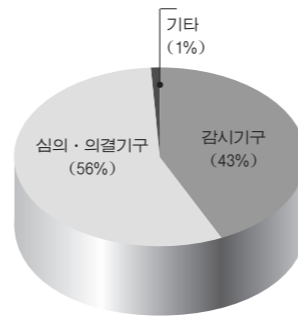


● 협의기구의 논의범위를 어디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문에 '전혀 모르다'가 59%, '몇 가지 사항만 알고 있다'가 34%로 대부분의 학생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의 재정 운영과 등록금 책정이 공개적이지 못했음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 협의기구의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해서도 '협의기구를 구성, 제도화해야 한다'고 답한 학생이 45%로 주를 이뤘다. 이어 등록금 관련 협의기구의 논의범위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상률 적절성 여부'가 50%, '학교 재정 예산편성 및 집행'이 48%로, 협의기구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감시기구로서의 역할'이 43%, '심의·의결기구로서 최종결정권 부여'가 56%로 나타났다.

결국 협의기구의 논의범위와 권한을 포함하는 '기구의 상'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에 무리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생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 방식으로 '협의기구 구성'을 가장 많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합한 협의구조의 모델'을 모색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타대학 등록금 협의기구 현황

민주적 절차 확보가 관건

등록금 책정에 학생참여 요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몇몇 대학들은 등록금 협의기구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조전대는 지난 2000년 학생·학교 본부·교수회·직원노조대표가 참여하는 '예산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는 학생이 예산의결권까지 갖고 있는 가장 활발한 운영기구다.

외대는 지난 2001년 '등록금책임위원회'를 구성해 첫 해에는 협회가 원만히 이뤄졌으나 지난해 총장의 합의이행 거부로 결렬돼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금조정위원회'를 건설해 등록금 관련 협의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올해 예산책정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서로의 이익만을 추구해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는 등 한동안 논의가 중단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밖에 중앙대는 '등록금소위원회'를 통해 12월부터 학생들과 학교측이 등록금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건국대는 지난 2001년 등록금 협의회를

구성해 등록금 책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등록금 협의기구가 마련되더라도 실제 협의과정에서 학교측과 학생간의 합의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측이 등록금 협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고지하는가 하면 학생들은 예·결산내역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학교측에게 이질감이 든다.

따라서 학내 구성원들은 등록금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첫 단계 때부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절차를 명시해 이러한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본교 등책협 일지

등록금 관련 협의기구에 대한 학생회의 요구는 90년대 초부터, 줄곧 불거져 나왔지만 매년 논의의 합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외적으로 지난 92년, 등록금책임협의회 구성이 합의되기도 했지만 이는 문서상에 그쳤다.

또한 99년에는 학내 3주체가 학내 현안들에 대해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대학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지만 이 역시 감시기구로 국한시키려 했던 학교와 의결·집행기구로 제시했던 총학생회의 입장차이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지난해 전임총장과 총학생회가 '등책협 구성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갖자'는데 합의했으나 총장체제가 바뀐 올해,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사설

개교 97주년에 부쳐

1906년 불교계 선각자들이 민족자본과 민족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세운 명진학교 이래, 100주년을 향해 달려온 동국의 '시계바늘'이 오는 8일로서 97을 가리키게 된다.

그렇다면, 현 동국의 모습은 개교 100주년을 뜻깊게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섣뜻 '그렇다'고 답하기에는 우리에게 당당한 과제가 적지 않은 듯 하다.

무엇보다 '외향적 발전'에만 치중해 왔다는 그동안의 평가를 감안해 볼 때, 앞으로의 중심 기치는 질적 발전과 '내실화'를 지향하는데 두어야 함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학내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바라는 바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인프라 구축과 교육·연구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세밀하게 구상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발전에 동인이 될 우수한 학생과 교수를 확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과제로의 전환'도 보다 신중하고 주의 깊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학부제의 폐단이 큰 현 상황만을 도피하기 위한 일방적인 미봉책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시 학과제로 전환할 시 발생할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맞다.

또한 학내 민주화의 진전과 구성원들의 화합도 대학의 질적 발전을 가능하는 또다른 축이 라 할 수 있다. 학교의 행방을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참여하며, 화합할 수 있는 '열린 장(場)'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논의 중만도다시피 한 불교병원 개원문제 등 현안들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1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사업도 다각적으로 구상, 추진해 동국의 '시계바늘'이 100을 가리킬 역사적인 날을 준비해야 하겠다.

동국만평

성덕환 pybumbuk@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겸 주간: 이상영
부주간: 구본철
편집국장: 류변성
편집장: 한보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26 경주캠퍼스 (우)70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358 팩스 (054)770-2057

2003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공고

- 1. 개설대상 교과목
2003학년도 1학기 개설 교과목, 2학기 개설예정 교과목, 계절학기 교과목 중 강좌개설요건 충족 교과목(단, 실업·실습 및 사이버강좌 제외)
2. 수업일정
가. 운영기간: 2003. 6. 23(월) ~ 2003. 7. 18(금)
나. 단기간강좌
1) 수험과 골프과목은 주 5일 수업(월 ~ 금, 10일간)
가) 골프: 6. 23(월) ~ 7. 4(금)
나) 수영: 7. 4(금) ~ 7. 18(금)
2) 산사의 생황(2박 3일) - 7. 21(월) ~ 23(수)
* 세부일정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3. 강지개설 기준인원
가. 전공 및 교직과목: 8명 이상
나. 교양과목: 10명 이상
4. 수강지역 및 신청확정
가. 수강지역: 2003학년도 1학기 재학생
나. 신청확정: 6학점 이내
5. 성적처리
가.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되며, 장학선발 및 학사징계 등 정규학기 학점취득과는 구별됨.
나.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전공, 복수(연계)전공 및 전과 결정 시 반영됨.
다.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F학점(과락)은 성적증명서에 등재됨.
라. 교과목명이 다른 과목을 재수강 신청한 학생들은 반드시 신청과 동시에 재수강신청원 (홈페이지-학사행정-양식함에서 출력가능)을 소속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목명이 같은 경우는 수강신청시 재수강 처리됨.
6. 수강신청
가. 기간: 2003. 5. 13(화) ~ 5. 15(목), 3일간
나. 수강신청 시간 및 장소
(1) 서울캠퍼스
(가) 시간: 5. 13(화) 오전 09:00 부터 5. 15(목) 24:00까지
(나) 장소: 지정된 교내 자유 실습실
(2) 경주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경주캠퍼스 학사지원실
(3) 대구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대구캠퍼스 학사지원실
(4) 부산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부산캠퍼스 학사지원실
(5) 제주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제주캠퍼스 학사지원실
(6) 강원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강원캠퍼스 학사지원실
(7) 충청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충청캠퍼스 학사지원실
(8) 전북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전북캠퍼스 학사지원실
(9) 경북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경북캠퍼스 학사지원실
(10) 경남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경남캠퍼스 학사지원실
(11) 광주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광주캠퍼스 학사지원실
(12) 대전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대전캠퍼스 학사지원실
(13) 대구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대구캠퍼스 학사지원실
(14) 부산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부산캠퍼스 학사지원실
(15) 제주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제주캠퍼스 학사지원실
(16) 강원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강원캠퍼스 학사지원실
(17) 충청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충청캠퍼스 학사지원실
(18) 전북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전북캠퍼스 학사지원실
(19) 경북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경북캠퍼스 학사지원실
(20) 경남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경남캠퍼스 학사지원실
(21) 광주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광주캠퍼스 학사지원실
(22) 대전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대전캠퍼스 학사지원실
(23) 대구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대구캠퍼스 학사지원실
(24) 부산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부산캠퍼스 학사지원실
(25) 제주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제주캠퍼스 학사지원실
(26) 강원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강원캠퍼스 학사지원실
(27) 충청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충청캠퍼스 학사지원실
(28) 전북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전북캠퍼스 학사지원실
(29) 경북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경북캠퍼스 학사지원실
(30) 경남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경남캠퍼스 학사지원실
(31) 광주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광주캠퍼스 학사지원실
(32) 대전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대전캠퍼스 학사지원실
(33) 대구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대구캠퍼스 학사지원실
(34) 부산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부산캠퍼스 학사지원실
(35) 제주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제주캠퍼스 학사지원실
(36) 강원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강원캠퍼스 학사지원실
(37) 충청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충청캠퍼스 학사지원실
(38) 전북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전북캠퍼스 학사지원실
(39) 경북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경북캠퍼스 학사지원실
(40) 경남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경남캠퍼스 학사지원실
(41) 광주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광주캠퍼스 학사지원실
(42) 대전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대전캠퍼스 학사지원실
(43) 대구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대구캠퍼스 학사지원실
(44) 부산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부산캠퍼스 학사지원실
(45) 제주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제주캠퍼스 학사지원실
(46) 강원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강원캠퍼스 학사지원실
(47) 충청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충청캠퍼스 학사지원실
(48) 전북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전북캠퍼스 학사지원실
(49) 경북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경북캠퍼스 학사지원실
(50) 경남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경남캠퍼스 학사지원실
(51) 광주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광주캠퍼스 학사지원실
(52) 대전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대전캠퍼스 학사지원실
(53) 대구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대구캠퍼스 학사지원실
(54) 부산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부산캠퍼스 학사지원실
(55) 제주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제주캠퍼스 학사지원실
(56) 강원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강원캠퍼스 학사지원실
(57) 충청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충청캠퍼스 학사지원실
(58) 전북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전북캠퍼스 학사지원실
(59) 경북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경북캠퍼스 학사지원실
(60) 경남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경남캠퍼스 학사지원실
(61) 광주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광주캠퍼스 학사지원실
(62) 대전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대전캠퍼스 학사지원실
(63) 대구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대구캠퍼스 학사지원실
(64) 부산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부산캠퍼스 학사지원실
(65) 제주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제주캠퍼스 학사지원실
(66) 강원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강원캠퍼스 학사지원실
(67) 충청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충청캠퍼스 학사지원실
(68) 전북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전북캠퍼스 학사지원실
(69) 경북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경북캠퍼스 학사지원실
(70) 경남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경남캠퍼스 학사지원실
(71) 광주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광주캠퍼스 학사지원실
(72) 대전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대전캠퍼스 학사지원실
(73) 대구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대구캠퍼스 학사지원실
(74) 부산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부산캠퍼스 학사지원실
(75) 제주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제주캠퍼스 학사지원실
(76) 강원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강원캠퍼스 학사지원실
(77) 충청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충청캠퍼스 학사지원실
(78) 전북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전북캠퍼스 학사지원실
(79) 경북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경북캠퍼스 학사지원실
(80) 경남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경남캠퍼스 학사지원실
(81) 광주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광주캠퍼스 학사지원실
(82) 대전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대전캠퍼스 학사지원실
(83) 대구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대구캠퍼스 학사지원실
(84) 부산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부산캠퍼스 학사지원실
(85) 제주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제주캠퍼스 학사지원실
(86) 강원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강원캠퍼스 학사지원실
(87) 충청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충청캠퍼스 학사지원실
(88) 전북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전북캠퍼스 학사지원실
(89) 경북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경북캠퍼스 학사지원실
(90) 경남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경남캠퍼스 학사지원실
(91) 광주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광주캠퍼스 학사지원실
(92) 대전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대전캠퍼스 학사지원실
(93) 대구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대구캠퍼스 학사지원실
(94) 부산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부산캠퍼스 학사지원실
(95) 제주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제주캠퍼스 학사지원실
(96) 강원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강원캠퍼스 학사지원실
(97) 충청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충청캠퍼스 학사지원실
(98) 전북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전북캠퍼스 학사지원실
(99) 경북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경북캠퍼스 학사지원실
(100) 경남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경남캠퍼스 학사지원실
(101) 광주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광주캠퍼스 학사지원실
(102) 대전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대전캠퍼스 학사지원실
(103) 대구캠퍼스
(가) 시간: 6. 11(수)·12(목)·13(금) - 3일간, 오전 09:00부터 오후 05:00까지
(나) 장소: 대구캠퍼스 학사

'억압'의 틀에서 벗어나

7여년 간 지속된 풀리지 않는 숙제

이적규정 후 해법논란 ... 한총련 공개농활 등 다양한 노력 보여

98년 대법원의 이적규정 판결 이후 6년 만에 한총련 합법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사실 한총련 합법화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당사자인 한총련 정치수배자들과 그 가족들, 관련 공간기관과 정치권에서도 늘 '해법'을 두고 논란이 돼 온 문제였다.

96년 연세대 통일대회에 이어 97년 출범식 과정에서 발생한 '이석 치사사건' (일명 프락치사건)을 거치면서 한총련은 이적단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등 엄청난 시련기를 맞게 됐다.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위원회 등이 부분적으로 이적규정을 받던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판결된 것은 5기 의장인 강위원씨 재판과정에서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제5기 한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적단체 규정 이후 한총련 당사자들은 물론 정부, 관련 공간기구 등에게 이 문제는 늘 설전의 대

상이었고 해법이 용이하지 않은 민감한 문제였다. 98년 김대중 정권초기에는 공간당국과 여권 내 보수세력의 반발로 시도조차 못한 채 한총련 합법화 의지는 꺾이고 말았다. 99년 한총련 수배자들이 5백 여일 넘도록 조계사 농성을 벌였지만, 당시 한총련 내부의 의견 차와 당국의 선별구속 조건으로 부분적 수배해제에만 머물렀다. 늘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한총련문제는 보수·수구진영과 공간기관의 강경한 입장에 끌려 다녀야만 했다.

공간기관과 보수·수구진영의 합법화 반대 논리는 한총련의 강령과 주장을 근거로 '친북적이다'는 논리였다. 여기에 더해 한총련 핵심간부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이른바 '주사파'라고 규정 짓고 합법화 불가론을 강조해 왔었다.

이에 당사자인 각 대학 현직 학생회장은 매년 검찰청 집단 출두, 수배자 공개농활, 수배자 공개 교생실습 등의 형식으로 끊임없이 이 문제를 공론화 했고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종교단체에서도 출기차

게 정부와 언론에 호소해 왔다. 정치권과 언론의 무관심과 냉소 속에서도 이들은 쉽 없이 한총련 합법화를 주장해왔던 것이다. 또한 문제시되는 강령을 개정하는 등 자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상당수 보여 왔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와 한총련의 노력은 지난해 2월, '한총련 합법화 대책위원회' 결성과 '한총련 이야기' 책 발간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대책위는 지난 1년 동안, 정치, 종교, 문화, 언론, 법조, 학술 계를 비롯한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와 인사들에게 호소했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사업을 펼쳐 왔다. 각종 토론회·문화제, 책 발간, 기도회·법회·미사 등 다양한 방식과 유엔인권위 제소, 해외 학자들의 서명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연대 활동까지 진행했다. 지난 1년 간 이뤄진 대책위의 이러한 활동은 국가보안법이 현존하는 상태에서도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법률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것이다.

이제 한총련 합법화는 마지막 골인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매년 수백 명의 양심수와 정치수배자를 양산했던 우리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이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공간기구의 여전한 반대 속에 노무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영순

unews 미디어취재팀 기자



11기 한총련 의장 인터뷰

“공극적 목표는 사회적 합법화”



이적규정 철폐를 위한 한총련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다. 특히 11기 한총련 정재욱 의장은 현직 의장으로는 처음으로 방송토론에 참여하는 등 합법화 여론 형성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정재욱 의장을 만나 한총련 합법화 활동에 대해 들어보았다.

- 한총련 합법화 활동 중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은, = 이것은 '여론전' 즉, 국민을 설득시키는 일종의 '싸움'이다.

지금까지 '한총련은 체제를 전복할 위험한 세력'이라는 일부 주장이 일반적으로 이어져왔다면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한총련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민주적 조직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을 언론에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의 공극적 목표는 단순한 법적 합법화가 아닌 사회적 합법화다. 많은 국민과 대학생들이 지지한다면 법적 합법화

는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회적 합법화를 위해서는 한총련 내부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 여러 차례 언급한 '발전적 해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기성언론은 우리가 마치 (법적)합법화를 위해 발전적 해소를 제시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사실과 다르다. 더욱 발전된 조직으로 거듭나는 과정일 뿐 전혀 다른 단체를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다.

새 조직은 더욱 민주적인 방식으로 우리사회의 '대안'을 이야기할 것이다. 올해 11월 각 학교 학생회선거를 통해 일반 학생들의 여론수렴을 거친 뒤 빠르면 내년 초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의 계획은.

= 합법화 열쇠를 쥐고있는 법무부 장관 및 검·경찰과의 면담을 요청해 놓고 기다리는 중이다. 일단 수배해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합법화 여론형성과는 별도로 각 대학의 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한총련 합법화에 대해 일반 학생들과 활발히 소통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급물살 탄 합법화 이야기

검·경찰 강경입장 여전 조속한 결론 맺어야

“한총련의장의 공개편지를 통해 한총련이 사회문제는 물론 스스로의 조직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합법화 문제가) 잘 풀리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일 한 TV토론회 프로그램에서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정재욱 한총련 의장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통령의 한총련 문제 해결의지가 공중과 방송을 통해 재확인된 셈이다.

한총련 합법화와 수배해제 문제는 이미 지난 3월 노 대통령이 “한총련 문제 검토”에 대해 언급한 이후 공론화되기 시작해, 관련 논의와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총련 합법화 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늦어도 4월 말까지는 해결”하겠다고 약속, '수배해제'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졌다.

법무부장관이 한총련 수배자 가족과 만나 해결의지를 보였고, 한총련 의장과 문재인 정무수석의 만남도 이뤄져 수배자들의 일괄적 불기소 처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새로 당선된 11기 한총련 의장의 '발전적 해소를 통한 새로운 학생운동'에 대한 발언에 대해 47명의 국회의원이 “한총련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수배해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보였다.

이와 함께 한총련 합법화와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과 집회 등이 수심차레 열렸고 한총련 합법화 대책위원회에 가입할 사람이 2500여명을 넘어섰고 있다.

하지만 한총련의 변화의지와 한총련 수배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와 각계의 의지도 불구하고 한총련 수배자들을 직접 수배, 검거하는 검·경찰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 대담 프로그램에서 “수배는 현행처럼 실정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한 최기문 경찰총장의 발언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실제로 지난달 13일 김기호(98년 울산대 부총학생회장) 군을 연행한데 이어 27일과 30일, 지난 2일과 3일까지 연일 수배자들을 검거, 연행하고 있다.

이러한 검·경찰의 미온적 태도는 사실상 청와대가 약속한 4월 말의 시한을 늦추게 한 주요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년 전 김대중 정권 취임 전의 한총련 합법화 움직임도 검찰 공간부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던 것을 기억하면 더욱 그렇다. 대통령이 해결의지를 재차 강조한 만큼 조속한 결론을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대중 속으로

한총련 관련 언론보도 분석

왜곡 · 마녀사냥식 일방적 보도

합법화 논의 급증후 새로운 국면 맞아

“친북분자들이 신촌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1996년 8월 14일, 김아무개 군은 이런 내용의 당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읽고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냐며 당황해한다. 이는 지난 96년 8월 연세대 통일대추전 무렵 일간지를 읽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느꼈을 법한 일이다.

당시 한겨레신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간지와 방송은 연대사건에 대해 진실을 외면한 채 현실을 왜곡하고 ‘마녀사냥’ 식으로 보도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경찰이 시위대 진압을 위해 헬기에서 대규모 최루액을 쏟아내고 신형 진압무기를 앞세운 장면을 편집한 채 이에 맞서는 학생들의 모습만을 폭력적으로 보도하는 식이었다.

또한 “한총련은 친 북한단체다 ... 북한의 비참한 현실에는 눈감고 사회주의 왕조인 김일성 김정일체제를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있다”(동아일보 1996년 8월 14일자), “(한총련은) 파이프와 화염병으로 무장한 조선 노동당 재남 행동대원들이다”(조선일보 1996년 8월 16일자)라는 식의 색깔론으로 ‘반 한총련’ 여론을 형성했다.

이후 한총련의 이적성여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날 때도 보수 언론들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는 “여당이 김토종인 한총련의 이적단체 제의는 어불성설이다 ... 대법원의 판례이므로 이를 정치행위로 뒤집는다는 것은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아닌가”(중앙일보 1998년 7월 3일자), “한총련의 이적성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것이다 ... 일부 하급심이 한총련에 이적성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국민들을 헛갈리게 하고 있다”(조선일보 1999년 4월 16일자)라는 기사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최근 노무현의 국민참여정부가 출범



96년 한총련출범식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한 후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언론보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일간신문들은 한총련 관련 기사를 3백여 건 이상 보도했으며, KBS는 지난 3월 이래적으로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찬반토론을 방영했다. 또한 지난달 17일과 지난 1일에는 MBC에서 ‘100분 토론’에 정재욱(연세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11기 의장을 섭외하는 등 그동안 금기시됐던 한총련 대의원의 방송출연이 이뤄지기도 했다.

‘건전한 여론형성’은 언론의 주된 역할이다. 그러나 한총련에 대한 논의는 언론의 편파적 보도로 인해 그동안 ‘음지’에 가려있었다. 최근 불어오는 언론의 관심이 국민들에게 한총련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길 기대해본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본교 한총련 수배자 오선임 양의 하루

학생권리 위해 동분서주 ... 수배로 건강 등 어려움 겪어

수업이나 평일 · 공휴일 등에 상관없이 언제나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한총련 소속대학의 단과대 학생회장에 선출됐다는 이유로, 총학생회장이나 부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수배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생활하고 있는 학생 대표자들이다.

“집회에도 나가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싶기도 한데 한총련이 이적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오선임(국교4) 양. 그는 지난해 사법대 학생회장에 선출돼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정치 수배자가 된 후 현재는 총학생회에서 학원자주화투쟁위원장(이하 학자투 위원장)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지난 2일,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아침 8시경에 일어나 신문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 오 양은 다음으로 공간소 위원회 간사인 김윤길 기획인사처 과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면담시간을 정했다. 구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후 공간배치와 관련해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면담시간은 10시 30분, 그는 남은 시간을 활용해 학내 곳곳에 붙일 선전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얼마 전 중앙도서관 휴먼실에 환풍기가 설치된 것과 관련해 화장실에서 담배피지 않기, 휴게실 깨끗이 쓰기 등의 캠페인을 벌일 생각이기 때문이다. 면담, 회의 등 특정한 일이 계획돼 있는 시간 외에도 본교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요즘 이러한 캠페인 뿐만 아니라 35대 총학생회의 공약 사항이었던 ‘좋은 수업 만들기’를 실행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김윤길 과장과의 면담을 끝마친 후 그의 발걸음은 정각원 앞으로 향했다. 각 단과대의 학생들이 불

농민학생연대활동(이하 농활)을 위해 출발하는 것을 지켜보고 격려하기 위해서다. “오늘 아침 예

전에 농활을 가서 만났던 어른들한테 전화가 와서 꼭 찾아뵙고 싶었는데 요즘 한총련 수배자 특별 검거 기간이라는 정보 때문에 참가할 수 없어 안타깝다”는 오 양의 마음은 이미 농활을 하는 장소인 충북 제천으로 떠난 듯했다. 하지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게 강요하는 한총련 수배자라는 낙인 때문에 몸은 학교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얼마 전 연세대에서 진행된 한총련 수배자들과 가족들의 상봉자리인 ‘새봄, 첫 만남’ 행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학자투 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을 뿐 아니라 수배자라는 신분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이 조심스러워 행사장에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말을 기다리다가 고함으로 내려가시려는 부모님을 행사장 문 앞에서 만나 안부만 확인한 채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농활대를 배웅하고 나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다. 오늘 점심은 농활대원들이 남기고 간 도시락이다.

오선임 총학생회 학자투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본교 한총련 수배자들은 총학생회실에서 직접 밥을 하거나 학교 식당에서, 행사 후 남은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은 정치 수배자가 된 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점심식사를 마친 오 양의 손에는 한약이 쥐여져 있었다. 지난 3월 경희대에서 진행된 서울지역 한총련 수배자들의 공개 건강검진에서 검진을 받은 후 처방 받은 약이었다.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에게 위와 같은 행사는 건강을 좀 더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이후 오 양은 각 과 학생회장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내일(6일) 총학생회에서 좋은 수업 만들기 관련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는 학생회가 오는 27일 학교측과 진행될 공개토론회에서 제시할 입장을 정리하는 초석이 되는 중요한 회의여서 많은 학과의 참여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 학생회장들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때문에 결국 직접 학교 학생회실로 찾아가 학생회장이나 학생들에게 말을 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법대, 사과대 등의 과 학생회 15여 곳을 방문하고 회의에 대해 알리자 어느덧 헤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일과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후발대로 농활에 참석하는 학생들을 배웅하고 총학생회로 돌아가면 한총련 사업계획과 5, 6월 본교 총학생회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총학생회 중앙집행부 회의 등의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같은 길을 걷는 선·후배의 격려가 있기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오선임 총학생회 학자투 위원장. 최근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하루 빨리 결실을 맺어 그가 자유로운 생활 속에서 사회와 학생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길 기대한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① 총학생회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는 오선임 학자투 위원장.
② 건강검진에서 밝혀진 위염 등의 증세로 한약을 복용하고 있다.
③ 학과 학생회장과 ‘좋은 수업만들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3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된 한총련 수배자들의 공개검진 결과

△질병의 원인=불규칙한 생활과 식사, 수배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수배학생 106명이 176개 질환을 앓고 있으며 평균 한 명당 1.7개의 질병을 갖고 있음.

△빠른 시일 안에 치료해야 하는 증상을 보이는 학생=부정맥(2명), 협심증 의증(1명), 고도근시(1명), 혈소판저하증(1명)

소나기

나는 이럴 때 동대인임이 자랑스럽다/부끄럽다



- △정각원 들어갈 때
△언덕길 잘 뛰어 다닐때
(심폐기능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는 듯)
△전지현 볼 때
△언덕길 땀흘리며 올라갈 때
△등록금 10% 올렸을 때
△학교가 높아서 운동이 팍팍 되게 자랑스럽다.
△다른 학교 친구들보다
내가 술 제일로 잘마실 때
△등록금 비싸서 알바해야 할때
△남산에 꽃 필 때
△멋진 조교가 컨닝 잡을 때
△쓰레기통의 쓰레기가 넘칠 때
△삼국대 다고 할때
△불교학교라는 인식이 강할 때
△하루가 다르게 튼튼해 지는 다리를 보면 자랑스럽다.
△컴퓨터실에서 오락하는 학우를 볼 때
△절에 갔는데 반야심경 따라부를 수 있을 때
△분리수거 못해서 넘치는 쓰레기통과 지성인답지 못한 저지분한 매너
△TV에 우리학교 교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실 때
△애들이 건대,단대 알고 우리 학교 모를 때
△항상! 자랑스럽다
△등반대회때 정상까지 올라가놓고 힘하나도 안들었을 때
△도서관 화장실을 보면 자랑스럽다
△내 허벅지를 볼 때
△시설 좋은 중앙도서관 볼 때
△종아리에 잡의(?) 생겼을 때
△RW기능 있는 컴퓨터 쓸 때
△도서관 24시간 개방할 때
△중도 자리 없을 때
△씻는 책 없을 때

TEL : 2260-3491·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탁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상시대 서동만 교수의 국가 정보원 기초실장 임명을 둘러싼 국회정보위원회와 보수 언론들의 색깔 논쟁과 예산의 비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을 둘러싼 논쟁과 시비는 우리가 21세기의 문턱에서도 여전히 마녀사냥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마녀사냥감이 아직도 색깔 논쟁과 가부장적 성문화에 대한 불복 패시비라는 사실에 아연하게 된다.

구대의연한 마녀사냥

서동만 교수 색깔 시비 사건을 계기로 학술단체 협의회가 퍼낸 자료에 따르면 레드 콤플렉스를 학문적으로 운위하기 시작한 것이 해방이후 거의 40년만인 87년이다. 그리고 그 때부터 '사상 검증'의 탓에 걸린 교수(와 연구자) 사건이 7건이나 된다. 이들은 논문이나 저서나 발언이 문제되어 검찰에 소환되거나 연행 또는 구속되는 곤욕을 치렀고 공직에 거론될 경우 '진보 성향'이 문제되어 낙마하거나 도중하차했다. 색깔 논쟁은 가장 확실한 진보 지식인 길러왔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사상 검증 파동과 보수 언론의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서동만 교수의



논단

조은
사회학과 교수

새 시대 색깔논쟁은

국가 정보원 진입은 색깔론의 마녀사냥이 예전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그 동안의 관례를 일단 파괴한 셈이다. 이러한 관례 깨기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도전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색깔 시비의 관례를 깨기만큼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해석과 도전의 힘이 더 부치는 곳이 우리사회 가부장적 성문화에 대한 관용과 관례이다. 가부장적 성문화는 우리사회의 힘있는 남성들을 한테

문치게 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마녀사냥을 더욱 손쉽게 만들어준다. 초등학교의 한 기간제 여교사가 교장의 차 심부름이라는 '관례'를 문제삼게 함으로서 한 '아까운' 교장의 목숨을 잃게 한 사건처럼 보이게 한 예산 비초등학교 교장 자살 사건은 그 문제를 제기한 여교사와 그 여교사의 문제를 수면위로 부각시킨 전교조를 문제시하는 사건으로 쉽게 매도되어 버렸다. 그 여교사는 죄인처럼 자신 사표를 제출하고

전교조는 '엄중한' 불똥이 튀어 상당한 힘을 잃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대로 가면 '우리사회의 어른들'이 누러온 가부장적 성문화의 관례나 기간제 교사의 구조적 문제는 합없이 은폐되고 말 것이다.

새롭고 다양한 '색깔'을

문제를 새롭게 보려는 사회적 힘이 키워지지 않는 한 색깔 논쟁을 통한 마녀사냥과 전풍이나 관례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마녀사냥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눈을 가진 새로운 세대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관례를 깨는 일은 젊은 세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대학생들은 우리의 희망이다. 만약 젊은 세대가 관례를 방관한다면 희망이 없다. "죄짓지 않는 방관은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시시각각 녹색이 짙어가는 5월의 남산을 바라 보면서 색맹이 아닌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회적 색맹이 아니기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가 진보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싶다.

오늘의 글

구본암 (전지4)

나의주장 게시판 애용자 '전자와 하늘이'

사이버 상담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본교 홈페이지 '나의주장'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아이디 '전자와 하늘이'.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생길 만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구본암(전지4)군이다. 그가 '나의주장'에서 유명해진 이유는 학생들이 어떤 질문이든 성의껏 답변해주고 함께 고민하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학생들의 궁금증은 많지만 답변이 부족하다고 느껴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구군. 그의 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학사행정에 서부터 생활에 대한 고민까지 다양한 분야의 질문에 대해 자상하고 정확하게 대답해 준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예전

부터 학교에 대해 관심을 갖는 습관과 학과 사무실에서 5개월 여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면 보람과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어요." 그는 예전부터 타인을 도와주고 고민상담을 해주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지금 그가 본교 구성원들에게 글 쓰기를 즐기는 것도 자신과 가까운 인물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기 때문이다. 주위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이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 하지만 구본암 군은 스스로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 2월 졸업 후에도 아는 범위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답변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들어 인터넷 게시판 나의주장란을 보면서 아쉬울 때가 있다. 익명성을 이용한 타인에 대한 인신공격, 비방 등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구군은 "욕설 등도 자신의 주장을 펴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켰으면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했으면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자신이 아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남을 도와주고 있는 구본암 군. 그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동악에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바람직한 청계천 복원으로 가는 길

오늘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창문에 붙어 있는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글은 버스 회사에서 쓴 것이었는데, 청계천 복원사업을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복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청계천 복원을 위해서 종로일대는 이제 일방통행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교통이 불편해지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게 되어 회사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태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계천 복원 공사는 이번 달 26일쯤부터 철거되는 원남고가도로를 시초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청계천을 복원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서울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

람들을 고려해 주지 않는 서울시의 처사는 그저 씁쓸하기만 할 뿐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추진한 버스노선 개편안은 도로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데만 치중한 나머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면 시민들은 사대문 밖에서 꼭 한 번은 버스를 갈아타야만 시내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잊혀진 역사를 다시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도 신중히 고려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청계천복원사업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이다. 문수진(문과대 중문3)

부처님 오신날을 자기쇄신의 전환점으로

5월 8일은 부처님 오신날이다.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자비로서 그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 세상에 나오신 날인 것이다. 전국 각 불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등을 만들고 전국 각 사찰을 비롯한 내가 속한 불교대학에서도 불교도 주간이나 연등축제 등 많은 봉축행사를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도(正道)를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냥 놀면서 맞이할 수 있겠는가. 봉축행사를 준비하며 부처님과 많은 보살님들과 선지식들을 생각하며 자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말, 행동 그리고 뜻이 어 떻혔는가 반성하며 좀 더 발전하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날이면 기쁜 마음과 동시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절감하며 한발자국 더

나가야겠다는 분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다. 또한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은 자신의 마음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도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다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잊어버리고 싶고 아예 처음부터 몰랐으면 편하게 지나쳤을 사회의 많은 모순점들을 끌어안으며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지금까지의 모습에 경중을 울린다. 만해 선사가 당시 청년들에게 "그대들은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했다. 우울한 시간 속에서 올 2003년 부처님 오신날을 통해 나 자신부터 되돌아보는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한 마음을 돌이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동국(불교대 선4)



서정대 이사장 21C문명의 선두에 서는 대학으로

앞으로 3년이면 우리는 개교 10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이만한 전통을 지닌 사학이 몇 안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는 명진학교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는 역사를 창조한 구한말 불교계 선각자들에 대해 경의와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교는 단순한 사립대학이 아닙니다. 한국의 민족문화와 사상의 근간을 이룬 한국불교가 대학의 모체이고 교육이념 또한 불교정신에 있다는 점에서, 본교는 어느 개인의 사학이 아닌 이 나라, 이 민족 모두의 대학입니다. 때문에 본교는 오늘날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사상, 전통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 종단과 민족문화에 대학의 초석을 두고 있다는 것은 다른 어느 사학보다도 무한한 잠재력과 창조적 가능성을 그 만큼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다시 새롭게 계발하고 집화시켜야 하겠습니다. 개교 100주년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역사에 걸맞는 자기의 위상을 보다 높게 재정립해야 함은 물론 우리 대학의 대 사회적 이미지도 한층 고양시켜 명실공히 명문사학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불교와 민족문화에 바탕을 두었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만을 대학의 생명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첨단과학과 의학분야, 그리고 자연과학 계통에 더 많은 투자와 연구, 교육을 집중시켜 21세기의 문명조류 속에서 선두에 설 때, 본교는 그 창립정신을 더욱 현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만큼 흥기삼 총장을 중심으로 교수, 학생, 직원, 그리고 동창회가 다같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양적 팽창에 주력했지만 이제부터는 더욱 내실을 기하여 질적 도약에 매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홍기삼 총장 지혜와 힘모아 백년동국 맞이하자

오월입니다. 오월을 인생에 비유한다면 청년기의 빛나는 아름다운이 돌보이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학의 오월은 축제의 달로서 아주 잘 어울립니다. 특히 우리 대학이 개교 97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5월 8일은 '부처님오신날'이 겹쳐, 그 어느 해보다도 상서로운 행운을 예감하며 맞이하게 되는 축제의 날입니다. 동국인 여러분! 우리 학교는 이제 개교 백년을 불과 세 해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의 지난(至難)한 민족사와 격변의 세계사를 돌이켜볼 때, 그 백년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동국의 현실은 그 의미에 대한 엄정한 해석과 함께 주어진 과제에 대한 냉정한 각성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역할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동국의 전통과 역사는 몇 사람에게 의하여 각색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학교를 설립한 선각자들께서 왜 교육의 일념을 실현하려고 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첫 번째 가치는 좋은 교육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좋은 교육'은 그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좋아야 하며, 좋은 시스템으로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총장에 취임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 저는 바로 이러한 대학의 기본적인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동국의 미래를 가장 바람직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새삼스레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현안들이 있다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의 백년 동국을 정말 '좋은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르치고 배우는 학문의 현장에서, 교육과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동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는 결코 현실과 단절될 수 없으나, 언제나 미래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본 좋은 미래동국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유영빈 총학생회장 함께 호흡하는 학생회로 새 희망을

개교 100주년을 3년 앞두고 있습니다. 동국이 시작되던 무려 97년이 되었습니다. 민족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길러내자던 동국 선배들의 의로운 뜻을 지금에 새겨봅시다. 입학당시 개교 90주년을 맞이하며 100주년을 동국의 밝은 미래로 만들자던 이야기들이 생각납니다. 이제 3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동국을 생각하는 선배님들 속에 동국에 자부심을 느끼는 현재를 살고 있는 학우들 속에 감히 '희망은 있다' 라고 단언합니다. 35대 총학생회는 개교 97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동국, '우리' 학생회라는 선거구호처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학생들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생동하는 자치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악을 만들어 가는 주체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변화된 시대, 개성이 존중되는 시대지만 함께 발 딛고 서있는 곳에서 우리는 동질감과 또 시대정신을 함께 느낄 것입니다. 이것을 모아내는 총학생회가 되고자 합니다. 물론 투명성과 민주성을 기본으로 요즘 시대에 맞는 의사소통과 대의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과·반 학생회가 학생들로 불리는 과 학생회 일꾼이 학생들에게 신뢰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 속에 그간의 오해와 불신도 없어 질 것입니다. 동국인으로서의 실력과 소양을 기르는 것은 입학성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실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응명! 정진! 만해청년의 기상으로 동국100주년 민족대학으로 함께 손잡고 가야 할 것입니다. 35대 총학생회도 학우들과 동국의 미래,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상논쟁을

지난 2일 본지에 철학과 흥윤기 교수가 본교에서 현재 진행중인 학과제 추진에 대한 장문의 기고문을 보내왔다. 학과제 추진을 비롯한 대학교육제도 문제가 본교에서 깊이 토론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에 동감해 그대로 실는다. 흥윤기 교수의 기고문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반론과 다양한 의견을 기대한다.

제안한다

편집자

학과제 회귀 결정, 문제 있다!

신임 총장 아래서 학내 구성원들이 체감할 정도의 업무로는 첫 사업에 해당되는 이른바 학부(과)제 개편의 결과 지난 8년간의 학부제를 전면 부인하고 거의 그 이전 수준의 학과제로 전면 회귀하는 하는 것이 불가피해진 것처럼 보인다.

이름만의 학부제에 미려한 이의를 제기한 지 만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 필자는 이제 당시와는 정반대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상한 또다른 기류를 비판하고자 하는 내 처지에 당혹감을 감출 길 없다.

1999년 4월 필자는 본교 대학원 신문을 통해, 당시 모든 대학을 벌집 쏜신 듯이 들끓게 하고 있던 이른바 '학부제 개혁'이 아주 비현실적인 취약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점을 비판한 적이 있다.

비판의 요지는 고등학교 때까지 자신의 진로를 놓고 자기 힘으로 의미 있는 선택과 결정을 내린 적이 없던 학생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놓고, 그러한 선택이 질적으로 높은 결과에 이르도록 하는, 다시 말해 자유의 길을 보장할 책임 있는 교육 과정은 거의 도외시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뒤 목격한 이른바 학부제 교육 개혁은 교양 과정에서 식상할 정도로 반복되던 일부 중복 강좌나 학과의 틀 안에서 안주하던 몇 개의 구태의연한 전공 강좌가 정비되는 등의 약간의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전공 필수가 폐지되면서 당연히 보완되었어야 했던 전공 수업 인프라가 강화되기는커녕, 필수 학점 폐지로 인해 전공 수업 시간이 현격하게 단축됨으로써 전공 교육의 질은 도리어 떨어졌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태에 도달하였다.

교양 교육 역시 학생들이 학점 따기 쉬운 과목에 편중되는 부작용을 제대로 막지 못한 채 대학 교육에서 당연히 달성해야 할 전공기초능력의 배양에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교육 개혁은 교육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아가 광역화된 모집 단위에 상응하는 선택의 다양성은 전혀 발전되지 않고, 학생들은 단지 기존 학과를 놓고 뒤늦은 선택만 하게 됨으로써, 학부제는 무늬만 학부제였지 사실상 잠복된 학과제에 지나지 않았다.

이름만의 학부제에 미려한 이의를 제기한 지 만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 필자는 이제 당시와는 정반대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상한 또다른 기류를 비판하고자 하는 내 처지에 당혹감을 감출 길 없다.

이번 3월에 들어선 본교 신임 총장 아래서 학내 구성원들이 체감할 정도의 업무로는 첫 사업에 해당되는 이른바 학부(과)제 개편의 결과 지난 8년간의 학부제를 전면 부인하고 거의 그 이전 수준의 학과제로 전면 회귀하는 하는 것이 불가피해진 것처럼 보인다. 3월 17일 교무처 학사지원실을 통해 단 1주일의 기한을 주고 각 단과대에 하달된 학부(과)제 개편에 대한 단과대별 의견서 제출 요망권에 대해 거의 3분의 2에 달하는 구성원들이 학과제로의 회귀를 요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 학부제로 인해 가장 심한 위기를 겪었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한 문과대의 경우, 학과제 회귀 여부에 관한 조급한 결정의 유보를 강력히 요망한 철학과 단 한

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7개 학과 전체가 학과제로의 즉시 회귀를 요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을 업고 단 2차례의 학과장 회의를 거친 문과대는 4월 24일 학과제를 확정하고, 이과대와 더불어 2004학년도부터 신입생을 학과별로 모집한다고 개별 교수들에게 통고했다.

학과제를 열망하는 다수 동료 교수들의 굵직한 시선을 무릅쓰고 필자가 학내 대세를 거스르는 글을 쓰기로 어렵사리 결심한 첫 동기는 신임 총장의 발의로 이루어진 현 학과제 회귀 논의 방식에 심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과거 학부제가 치밀한 검토와 충분한 보완 조치 없이 단지 교육부 지원금을 목표로 행정명령식으로 졸속 시행되었던 반면, 현재 학과제 논의는 학과제 회귀에 따르는 여러 문제, 특히 과거의 학과제를 복귀시키는 것이 앞으로 교육의 질적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관해 대과다운 사례 깊은 통찰 없이, 단지 학과제가 만능임을 믿는 교수들의 반사적인 여론만 내걸고 조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학과제 하에서 정원이 계속 미달되는 학과에 대해 정원 조정이 예상된다는 부가 조건의 독소성, 그리고 이전 학과제 문제점의 보완을 일단 학과단위 모집 이후에 하겠다는 그 안일한 대처 방식이다. 이 두 문구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의 학과제 회귀 논의가 우리 교육 환경에 대해 얼마나 안이한 인식에 바탕한 것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학과제 하에서 정원이 계속 미달되는 학과에 대해 정원 조정이 예상된다는 부가 조건의 독소성, 그리고 이전 학과제 문제점의 보완을 일단 학과단위 모집 이후에 하겠다는 그 안일한 대처 방식이다. 이 두 문구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의 학과제 회귀 논의가 우리 교육 환경에 대해 얼마나 안이한 인식에 바탕한 것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전자의 문구에서는 정원의 계속 미달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이에 신입생 모집 때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극단적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설사 모집 정원은 채웠다 하더라도, 여러 이유로 학과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학사 기간이나 졸업 때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과가 있을 경우 그 학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례로 서울 시내 모 사립대학에서 국내 유일한 전공을 운영하는 학과의 경우 처음부터 학과제로 모집해 60명 정원으로 출발하였지만 졸업생은 6명밖에 남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 학교 문과대 교수의 관찰에 따르

면 적어도 정원 채우는 측면에서 학과제의 약발은 3~4년이라는 자조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비인기학과일수록 학과제에 목을 걸 경우, 학교측의 재정 운영 문제와 부딪힐 때, 등록금 결손의 직접적 책임을 학과가 떠맡아야 한다는 대단히 나쁜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학과제를 일단 실시하고 예전 학과제의 문제점을 사후 보완하겠다는 발상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전임교수진이 고정되어 있는 현행 및 예전 학과제제는 그 전공 차원에서든 새로운 학문 조류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데 심대한 문제가 있으며, 기존 학과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식의 요구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치명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학과 교수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 한, 일단 특정 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은 4년 재학 기간동안 새로이 발전하는 지식의 흐름을 적어도 자기가 다니는 학과를 통해서만 배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실 본질적 문제는 신입생 모집을 학과제로 할 것인가 학부제로 할 것인가가 아니다. 본질적 문제는 우리 학교 학생이 들어와 4년 지난 뒤 어떻게 변모된 모습으로 이 험한 세상살이에 나갈 것인가를 학교측과 교수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온 학생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그들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 학교에 감사함을 느끼게 할 것인가? 내 학과 하나 살리는 것이 그 답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더욱 슬픈 것은 총장이 바뀌어도 문제에 대한 교수다운

성찰을 학교 운영에 도입하겠다는 의지나 비전이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과제와 학부제를 넘어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적 개선만이 대학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어 전임 총장 아래 어렵사리 모인 교수들이 학술진흥재단의 외부 지원을 얻고 학교의 상용 자금을 받아 1년 넘게 우리 학교 교육 시스템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 자발적 움직임이 있었다. 긴 토론과 모색 끝에 이제 학내 구성원들의 토론에 불일 수준의 구상도를 제시할 단계에 총장이 교체되었고, 이 과제는 새 보직 교수들로 구성된 이른바 검토위원회에서 난폭하게 포기되었다.

과거에는 단 한 사람의 완고함이 일을 그르쳤다면, 지금은 집단의 맹신이 말하는 것조차 거부한다. 동료 교수들의 뜻을 맞는 것은 아픈 일이다. 그러나 돌아선 학생들의 차가운 등을 보는 것은 교수로 있을 나머지 인생 내내 고통스러운 일이다.

흥윤기 철학과 교수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동대신문 현주소 모색 끝까지 잊지 말아야

지난호는 동대신문 53주년을 맞아 동대신문의 현주소를 이야기하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 같다.

대학신문의 위기가 동대신문에도 예외는 아니라는 판단에 동대신문 평가 공개 토론회와 설문조사 결과 기사는 동대신문의 현주소를 학우들에게 알립으로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합

게 모색할 수 있는 좋은 시도였던 것 같다.

아울러 '동대신문의 다짐'이라는 사실을 통해 앞으로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게 꾸준한 노력과 실천의 다짐을 보이면서 학우들로 하여금 동대신문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였다. 앞으로 동대신문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본다.

동대신문에서도 몇 차례 다루었지만 여전히 시들지 않고 있는 반전(反戰) 여론을 반영하듯 문화계가 의지는 반전 기사를 통해 미국의 명분없는 전쟁에 대해 꼬집었다.

독자의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반전은 이 시대의 양심이다. 이라크에 자행되고 있는 미국의 명분없는 침략 전쟁으로 더 이상은 무고한 어린 아이들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대신문에서 3주째 기사를 쓰고 있는 '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기획 기사에 적절하게 학교의 예산 공개가 나서 등록금 사용에 대한 학우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준 것 같다.

그러나 학교의 예산공개는 포괄적인 부분의 사용처만 나왔을 뿐 자세한 사항은 다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궁금증은 남아 있다.

이종관(사범대 역교3)



동약광장

축하합니다

△총학 문화국장님! '결의' 축하합니다
△5일 전자공 3년 권혁자 생일입니다.
△국통 02 이도연♡03 노미정 축하!
△용준야 생일 축하해 -영훈
△정신대99 이기철 여자친구 생건거 축하 축하
-우보현
△주희양, 늦었지만 생일축하하네. -이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수야 수고했다 편택에서 좋은곳으로 가라 -맛
△불교대 여러분 불교도 주간행사하느라 모두 수고했어요♡~
△해령아 중국 다녀오느라 고생했다 사스 때문에 조기 귀국했지만 반갑네 -애비
△태형이, 노경이 고생많다. 형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힘내자 -ToTo 8기
△AJAX 시험 보느라 수고했네.
△사과부 03학년 5반 친구들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대 학우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배
△불교도주간 동안 수고하신 동불련 여러분 다들 힘내서 연등축제까지 마무리 합

시다. 다들 파이팅 수고하세요.

열심히 합시다

△Fearless Dawn Rock Festival 잘하자!
△내사랑 쟁구님. 다음달에 시험이 많지요? 아프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지은이 중간 시험 대박!화이팅! -시미
△새내기 농구대회는 국문과가 우승한다.
△단풍엔 정기공연 잘해 봅시다.
△이병헌 아저씨! 훈련 열심히하거라!
△재혁야, 수양야, 상훈야, 정수야 공부 좀 열심히 해~
△(원)진희야. 시작한 공부 열심히 해.
△연극학과 4기 열심히 하자! 사랑한다
△PODI 토토배 우승을 향해 열심히
△불매야 아총 50인 봄 농활대 주체 여러분! 여름 농활은 100인입니다!
△사과대 징검다리 5월 10일 기행갑니다!! 무사히 다녀오길. -03연나·선경

그리고...

△남의 우산 가져가지 맙시다.
△지리학 입문. 컨닝이 너무 심했어요.
△애 도서관 1층 정수기는 화장실 옆에 있을까?
△선경 유인물을 치우자.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5/5)	순두부찌개 (1300) 제육콩나물볶음 (1200) 순살돈가스 (1500)	휴관(어린이날)	휴관(어린이날)
화(5/6)	닭곰탕 (1500) 미트소스볶음밥 (1500) 간풍육 (1500)	근대국백반 (1500) 해물칠리볶음밥 (1500) 닭꼬치구이 (1500)	참치전골 (3200) 꾸꾸미볶음 (3200)
수(5/7)	잔치국수 (무료급식) 두부김치 (1500) 불고기 (1500)	잔치국수 (무료급식)	부패 (5000) 된장찌개 (3000)
목(5/8)	양지탕 (1500) 미트볼덮밥 (1500) 회덮밥 (1500)	휴관(석가탄신일)	휴관(석가탄신일)
금(5/9)	육개장 (1500) 닭갈비김치볶음 (1500) 떡볶고기 (1500)	소고기 미역국 (1500) 오징어가스 (1500) 참치김치덮밥 (1500)	영양술밥 (3200) 제육볶음 (3200)

불교생태학의 오늘과 내일

1. 세계생태학의 동향과 전망
2. 불교생태학의 현 주소
3. 불교생태학의 필요성과 가능성
4. 불교생태학의 발전적 추진 방향

을 초부터 총기사 총장이 본교를 '불교생태학'의 총본산으로 특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표방함에 따라 앞으로 관련 연구와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첫 출발점으로 지난 2일 불교문화연구원에서 '불교생태학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학술면에서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4회에 걸쳐 기획, 연재해 불교생태학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

생태불교의 합리성을 찾아서

환경문제, 생태학적 문제에 대한 반성은 미국에서 일어났다. 실패한 뉴에이지(New age Movement) 세력이 사회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로 환경문제를 선택함으로써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15년쯤 지나 철학, 사회학, 정치학의 분야에서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돼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기존의 윤리학을 포기하고 새로운 형이상학, 새로운 자연관에 기초한 생태도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전통의 규범윤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 동양적 사유에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는 사람들, 근세철학과 현대성 비판이 생태계 위기를 돌파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접근법들이 등장하였다.

생태계 위기 시대의 종교와 윤리

현대 생태사상은 △유사-종교적 신비주의 △생태학적 신비주의 △과학의 형이상학화를 의도하는 포스트모던 과학주의 등 아주 위험한 방향으로 확

대되고 있다. 이 모두는 이성을 불신하고 인간을 혐오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니체적 비합리주의=비합리주의로 뛰어드는 방법 △이성과 다른 것(Das Andere)으로 철학하기=몸의 철학, 감정의 철학, 자아의 철학 △이성의 파괴=포스트모던적 허무주의 △동양의 지혜술 등 인간과 이성과 합리성을 대신할 대안적 노선을 찾는다.

현대 세계에서 모든 의사결정은 법치국가의 원칙, 절차, 규범에 따라 움직인다. 이른바 전략적 의지 관찰을 위한 싸움터인 사회세계에서의 법적 절차만이 작동할 뿐이다. 개인의 직관적 결단에 의지하여 결과적으로 옳고, 선한 행위라는 윤리적 목표와 의무로 설정된 행위의 성스러운 결과를 의도하는 종교적 목표는 그 관찰 방법의 차이로 갈등해왔다. 근세 이래로 종교의 초월적 차원과 윤리학의 현실 지향은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윤리는 사적인 영역으로 숨어버려서 전지구적 연대 책임을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전지구적인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동시에

종교는 도덕적 담론 내에서 당위, 혹은 의무지향적 행위만을 보기 때문에 사실의 세계에 무관심하다. 윤리는 지극히 사적인 신앙으로서의 종교를 보편화 가능한 종교적 실천을 매개하는 보조자 역할을 해야 한다.

생태학적 불교의 가능성

'불교+생태학(Buddist ecology)'이 목망을 절제하고, 문명과 자연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생태계에 대한 불이해와 무지배의 관점을 연기와 자비의 생태관으로 되돌리려는 불교학의 한 분야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개념화이다. '불교+생태학'은 영어식 표현에 있어서나 우리의 복잡명사 사용 규칙에 비추어 보거나, 불교의 영역이 아니라 생태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기체의 상호작용에 대한, 또 이들이 속한 환경에 대한 관계를 탐구하는 생물학의 하부 분야인 생태학을 아무 조건 없이 쓸 경우, 불교생태학은 순수 자연과학이 되어 버리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학문 분야로



된다. 때문에 필자는 '생태학적 불교(ecobuddhism)' 혹은 '생태불교(학)'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모더니티는 이념이 허술해서도 아니고, 이 이념을 곱해하고, 충분히 논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의 혁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탱하는 이성을 합리적으로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완의 혁명을 완성하는 길은 서구적, 기독교적 합리성을 불교적 합리성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생태불교의 합리성을 위대한 예술가의 영혼처럼 자연의 정연함과 법칙, 그 넘치는 생명력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심미적 합리성이다. 생태불교의 합리성으로 우리는 비로소 자연과의 창조적인 조화 속에 있을 수 있다. 생태학적 불교는 그 일을 해야 한다.

구승희
윤리문화학과 교수



이혜은 교수의 국제분쟁이야기 (3)

유대인과 아랍인들간의 분쟁

'국제분쟁' 하면 으레히 떠오르는 지역이 서남아시아지역이다. 이 지역은 유럽인의 관점에서 중동으로 불리우는 지역으로 우리 동양권의 문화와는 달리 서양세계와 더 친숙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민족, 종교, 언어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유대인과 아랍인이 함께 살고 있어 항상 폭발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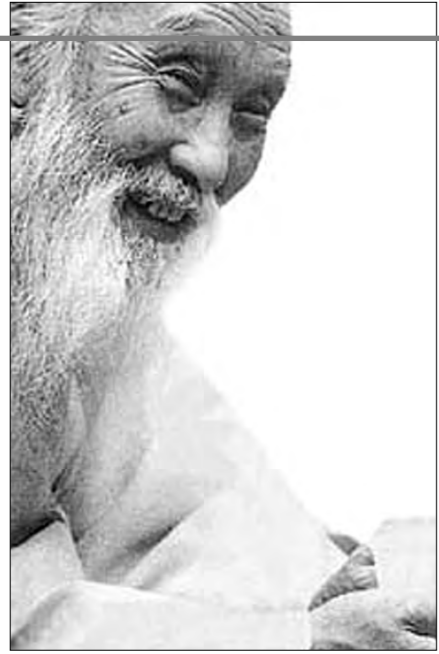
1989년,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 파리에서 비행기를 탑승할 때의 검문, 회의장이었던 히브리대학을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든지, 대학 밖으로 나올 때도 한사람씩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진 교문의 유형은 항상 테러의 위협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였다. 필자가 머물렀던 동안에도 아랍인에 의한 정거노선버스의 자살공격과 인접국가 확장의 파장은 이 지역이 분쟁 속에 살고있음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준 사건들이었다.

이러한 두 민족 간의 싸움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됐다.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며 이집트에서 유대인을 이끌고 팔레스타인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에 기인했을 수도 있지만, 세계 각국에 흩어져있던 유대인들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이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 주변 아랍국가들과 4차례의 전쟁을 치르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더욱이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가들, 그리고 미국, 소련 등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이해관계가 얽혀 만들어진 분쟁이었다.

이집트에서 만났던 사람이 "어려서부터 유대인을 적으로 알고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할 수 없다"고 한 말은 아랍인과 유대인간의 적대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모세의 기적 등에 대한 해석에서도 민족 간 큰 차이가 있으며 과거 역사 속에서 민족 간의 우열싸움이 민족감정으로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종교에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었던 사실 때문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아랍인들의 미국에 대한 불신 내지 반감은 2001년 일어났던 9.11사태나 이번 이라크전쟁에서도 그대로 보여졌다.

물론, 세계의 화약고인 이 지역에서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당사자간에,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도움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 지역을 방문했던 미국의 어떤 교수가 "아랍세계의 지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미수복지구로 남아있을 뿐이다"라고 말을 한 것과 같이 아랍세계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사람들은 자신들의 모태가 이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루살렘이 민족·종교별로 셋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모두가 이곳을 성지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간의 잘못,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를 인정해 두 민족의 완전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유대인과 아랍인들간의 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함석헌 가상 인터뷰

뜻으로 본 한국역사에 담긴 역사철학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는 1930년대 초 출간된 후, 현재까지 꾸준히 읽혀 온 명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함석헌기념사업회는 이 책의 저술 70년을 기념해 지난 2일, 명동 YWCA 대강당에서 함석헌의 역사관과 역사철학을 집중 조명하는 공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토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함석헌 선생을 가상 인터뷰 해, '뜻으로 본 한국역사'에 담긴 함석헌의 역사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 의미와 현재성을 짚어본다.

- '뜻으로 본 한국역사'에는 무엇보다 역사의 의미에 대한 나름대로의 발견을 표현한 부분이 많은 듯 한데요, 일생의 '화두'이기도 하셨던 역사와 역사관에 대해 간단히 말씀하신다면.

= 역사는 곧 사관을 말하지. 즉, 세상을 들여다 보는 눈이자 관점이야. 역사란 예술의 혼을 가진 장인의 벽화지 재주 많은 사람이 찍어놓은 사진일 수는 없거든. 장인의 눈이자 손이며 마음인 셈이야. 바라보는 방향이 변함에 따라 보이는 바가 서로 다른 법처럼, 결국 어떤 사관으로 역사를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네.

- 40년대 과학적 역사연구로 자부하던 실증주의 사학에 대한 비판도 그러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는지요.

= 그렇지. 과거의 사실을 기록한다고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역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네. 기록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서 나는 역사에서 객관적 사실을 추구하기보다는 해석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보는 거야. 역사적 진리를 자연과학적 기술에 있는 줄로 아는 실증주의 사학을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일례로 과거의 많은 사가(史家)들이 공정한 역사를 쓰기 위해 해석 없는 사실을 기록하다가 수십 수백권의 이름 목록만을 쓰게 됐다는 이야기도 그러한 문제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해석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거나 과장하려 하지는 않네.

- 그런데 책 제목이 처음 쓰여질 당시에는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였다가 60년 대 초 직접 지금의 제목으로 수정하셨다고 들었는데, 그와 함께 달라진 역사인식도 있으신지.

= 일단 30년대 내 사관이 기독교 중심사관이었던 반면, 기독교 정권(이승만 독재정권)의 폭정을 체험했던 60년대는 좀 더 보편적인 사관으로 변모했다고 할 수 있네. 또한 30년대에는 민족주의적 사조를 강하게 풍겼다면, 민족을 앞세운 국가주의의

함석헌(1901-1989)

- 문필가, 시인, 시민운동가, 종교사상가, 역사철학자
- 독립운동과 민주화, 인권운동에 공헌
- 씨알사상 정립, '씨알의 소리' 창간
- 주요저서 : '뜻으로 본 한국역사' '두려워 말고 외치라' '씨알에게 보내는 편지' '인간혁명의 철학' 등 100여권



별명과 같은 민족끼리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은 60년대에는 탈민족적 색채를 재검토하게 됐다고 말할 수도 있지.

- '뜻으로 본 한국역사'에 드러난 또 하나의 큰 주제가 나와 민족,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발견인 것 같은데, 대표적인 '씨알' 사상도 그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 책의 제목과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해도 바뀌지 않은 일관된 방향성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확립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일세. 가혹한 일제의 폭정 아래에서 한국역사의 정체성 상실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세계사의 맥락에서 한국사의 의미를 숙고하고자 했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즉 자아발견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였던 거지. 해방 후 역사가 뒷걸음질 친 원인도 씨알(민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게는 씨알의 책임의식, 깨어 있음의 절실함이 있지. 결국 모든 역사적 사건에 자신의 책임 의식을 느끼는 것이 인간역사의 방향이라고 나는 믿고 있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인류 문화유산 대참사를 말한다

미국의 방관적 태도가 초래 ... 국제 차원의 복구 노력해야

전쟁의 기본 속성이 살상과 파괴임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여도 6천년간 지속되어 온 인류의 문화유산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라크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 만든 가장 지적이며 풍요한 고고학적, 문화적, 종교적 유적과 유물을 가진 나라이다. 이 곳에서 인류 최초의 수메르 문명이 탄생했으며 문자를 발명하여 역사를 기록했



고 인간이 처음으로 도시국가를 만들고 그 곳에 그리스의 파르테논신전보다도 3천년이나 빠른 신전을 세웠던 것이다.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뒤 바그다드의 국립박물관은 무지한 이라크 시민들의 약탈로 인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슬람 유물 17만점이 이틀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박물관은 수메르시대부터 범적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대왕의 고대 바빌로니아, 궁중건축과 부조석 판이 뛰어난 아시리아, 궁중정원과 바벨탑을 건설한 네브카드네자르 대왕의 신바빌로니아 그리고 이슬람시대까지의 귀중한 유물이 전시되고 소장되었던 곳이다.

전쟁과 폭동의 와중에서 유물을 온전하게 보존하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학자들이 유물의 훼손과 약탈 등 귀중한 문화유산이 위협에 직면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촉구하였으며 이러한 일들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고, 또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방관적 태도와 무관심 속에서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그렇게 사라져 간 것이다.

미국은 뉴욕시에만 200개 이상의 박물관을 가진 문화 선진국임에도 이번 전쟁에서 바그다드박물관의 파괴와 약탈을 목안한 큰 오점을 역사에 남겼다.

이번 문화재 참사를 놓고 국제사회에서는 유물 되찾기 운동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옥스포드와 캠브리지대학 교수들이 공동 웹사이트에 약탈

당한 유물 목록을 공개했고 예일대학을 중심으로 전 세계학자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그리고 세계의 주요 박물관들이 유물을 되찾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미국은 뒤늦게 약탈당한 문화재를 찾기 위해 정부의 모든기관이 동원되었고 회수기금으로 1차분 2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탈리아도 약 4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기로 했다.

한편 인터폴(국제경찰기구)은 도난 예술품을 찾기 위해 프랑스 리옹에서 국제 공조체제의 구축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유네스코도 약탈문화재의 수입과 밀매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역사적으로 세계의 많은 예술적 보고와 문화유산들이 전쟁의 무고한 희생물이 되어왔다. 반면 문화적 관심이 높았던 군대의 지휘관들에 의해 문화유산을 존속시킨 공로도 기억하고 있다. 또한 기아와 공포 속에서도 문화재를 어렵게 지켜낸 레닌그라드 시민들은 오늘날 에르미타주 미술관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문화파괴는 전승보다 역사에 오래 남는다. 이라크의 문화유산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인류공동의 유산이며 세계가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들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는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다.

전 봉 진
본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불교 문화행사로 자비나누기

다양한 문화행사로 관심유도 ... 준비부족 아쉬워

스님, 목탁소리, 명상, 108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 하면 딱딱하고 엄숙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불교종립학교인 본교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교를 어렵고 멀게만 인식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올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동국대학교불교도연합(회장=김동국·선4, 이하 동불연)이 진행한 불교도주간 행사는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팔정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불교의 새로운 면을 알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국 동불연 회장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학생들이 불교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사동기를 밝혔다.

불교도주간 문화행사는 △연꽃컵 만들기 △불탑쌓기 △순수건 만들기 △냉동차 보시 △디지털 카메라 찍기 △인도물품 판매 △타로카드 점 △인도영화상영제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연꽃컵 만들기 행사는 평소 직접 연등을 만들 기회가 없는 일반 학생들에게 연등 만드는 기회를 제공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인도물품 판매행사는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인도담배, 팔찌 등을 판매해 학생들에게 인도문화의 향기를 전했다. 이 행

사에 참가한 장소연(물리4) 양은 "인도에서 실생활에 이용되는 물품을 직접 접하니 인도는 나라가 한결 친숙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학림관 소강당과 구중양도서관에서 4일 동안 인도영화상영제가 열려 스텐다스 △모하메딘 등의 영화가 상영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인도 영화의 특징으로 꼽히는 뮤지컬 영화의 진수를 맛보았다.

그러나 준비소홀로 인해 일부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으며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 철저한 사전준비에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몇몇 아쉬운 점이 있지만 불교도주간 문화행사는 학내 문화행사가 없는 시기에 학생들에게 새로운 불교문화를 접하게 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수익금의 일부를 '이라크 난민 기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불교 근본 정신과도 맥을 같이 하는 행사였다고 평가된다.

"앞으로도 일반 학생들이 참여가 가능한 쉽고 재미있는 불교 관련 문화행사를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불교대 한 학생의 말처럼 대중과 호응하는 불교를 만들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대해본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문화인이 말하는 나의 하루



"랩과 춤이 삶의 전부지요"

신 동 민
토목환경 2

지기독이라는 힙합팀으로 언더에서 활동 중인 나의 하루는 보통 남들이 한창 잘 시간인 새벽 2시 반 신문 배달로 시작해서 음악 작업과 연습, 그리고 공연 등으로 끝을 맺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다.

최근에 우리 팀이 참여한 컴필레이션 앨범 'Hip

Hop Scene' 이 발매되었는데 거기에 수록된 우리 노래 중 '삶의 이유' 란 곡이 타이틀곡이 되면서 뮤직 비디오 촬영에 들어갔다.

오늘은 바로 그 첫 날.

설레는 마음으로 오전 7시경 제작자 분과 코디하는 분을 만나서 같이 안성에 위치한 동아 방송대학교로 향했다.

9시가 조금 넘어 도착한 동아 방송대학교에는 이미 촬영 팀이 준비에 들어가 있었고 우리는 신속하게 메이크업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협찬사의 옷을 입고 스튜디오 촬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뮤직 비디오를 수없이 봐 왔지만 직접 촬영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역시 예상대로 상당히 흥미로운 작업이었다.

우선 카메라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촬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클로즈업 된 화면이기 때문에 모션을 할 때 카메라 반경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고 노래에 맞게 입을 맞추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두 번째 촬영은 마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듯이 스튜디오 내에서 마이크를 잡고 공연하는 모습을 연출해내는 장면이었는데 이전 그냥 평소에 공연하듯이 촬영을 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내에서 다른 엑스트라 몇몇 분들과 춤을 추면서 마치 파티장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을 촬영했는데 처음에는 서로 어색한 분위기에서 촬영에 들어갔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진짜 파티장에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신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렇게 오늘의 모든 촬영을 마치고 옷과 약제사리 등을 챙겨서 저녁 7시경 다시 집으로 향하는 차에 올라탔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상당히 피곤한 하루였지만 색다른 경험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날이었다. 오늘 촬영한 뮤직비디오가 기대된다.

문화단신

'아리랑' 남북 동시 개봉

영화 아리랑(감독=이두용)이 오는 23일 남북 동시 개봉될 것으로 보인다.

1928년 나운규의 동명 영화를 리메이크한 아리랑은 지난해 10월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국내 영화 최초로 시사회를 가졌다. 그 후 남북 동시개봉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지금의 결실을 이루게 했다.

아리랑의 제작사는 지난달 두 벌의 프린트와 포스터, 동시개봉에 대한 합의서 등을 북측에 전달했으며 이번 달에 북측을 방문해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상영이 결정되면 북측은 1일 2회 기준으로 평양 국제영화회관과 개신문영화관 등 2개 극장에서 무료상영되며 남측은 극장개봉 된다.

예술축제 F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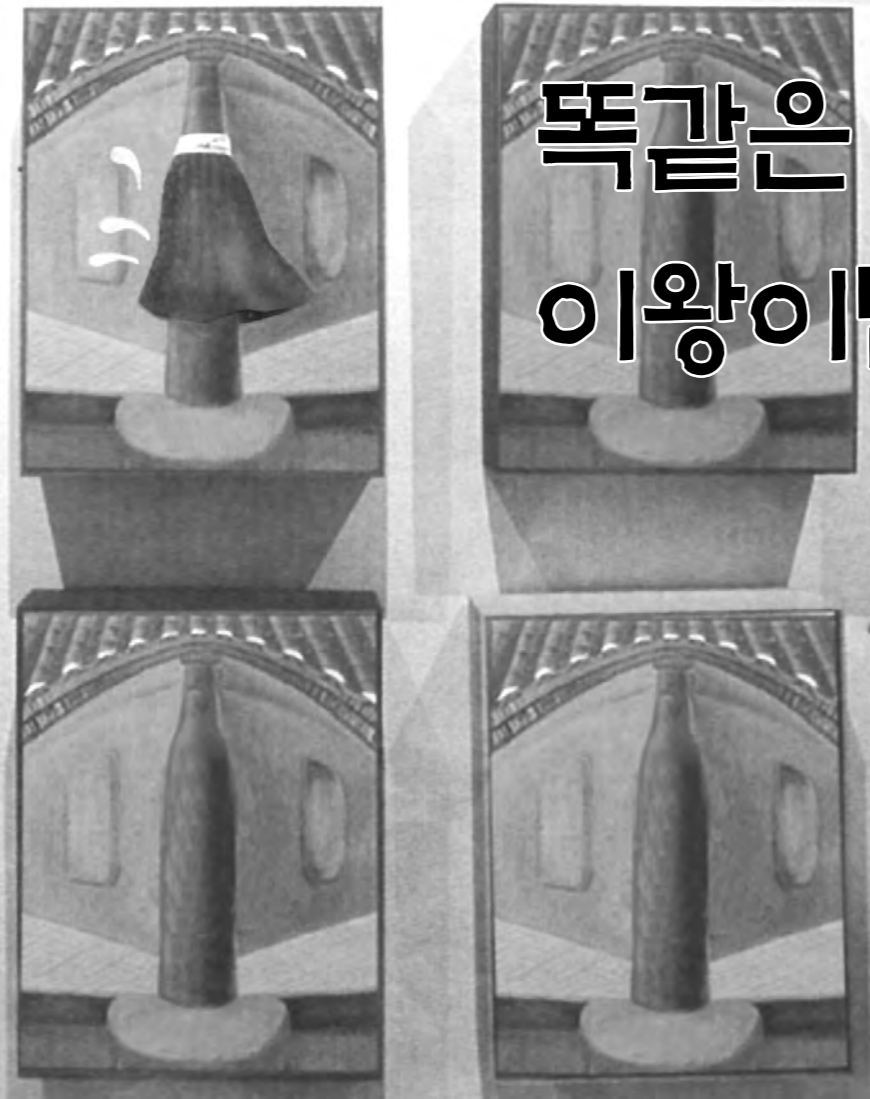
예술축제 FAM(Arts Festival Folk&Modern III)이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국립극장에서 열린다.

'예술 놀이터'를 모토로 하는 이번 행사는 어렵게 느껴지는 예술을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종합축제이다.

특히 눈여겨볼 작품은 클래식 음악에 코믹한 연극 요소를 결합해 '보는 연주회'라는 새로운 장르 연 영국의 현대 클래식 앙상블 고그 마고그스의 '검보 점보'.

또한 경쾌한 피아노 연주가 화려한 탱고와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보이는 아르헨티나 엔리케 쿠티니 오케스트라의 '탱고 이모션'도 주목할 만하다. 문의 3273-6885

기획광고



똑같은 건 싫다?

이왕이면 다홍치마 입은 학생회실!

하얀 벽과 천정, 그리고 낡은 소파 ... 똑같은 모습의 학생회실에 싫증났다면 '과·학부 학생회실 꾸미기 대회'에 도전하세요.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cafe.daum.net/dgupeacefestival), 총학생회실 방문 접수

▲신청마감 : 2003년 5월 9일

▲심사위원 : 동대신문사,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각 단과대 학생회장

▲심사기준 : 학과특성 살리기와 효율적 공간활용

▲시상 및 상품 : 2003년 5월 22일 대동제 폐막식 때 시상

- 1등 디지털 카메라
- 2등 CD카세트
- 3등 기타

매체비평

연극 편

트랜스 '십이야'

“성의 이데올로기에 도전 역동성 부족 아쉬워”



성을 뒤집어 재공연하는 극단 가변의 연극 트랜스 '십이야'.

지난 2002년 국립극장의 셰익스피어

러브 페스티벌에서 단연 화제를 모았던 '극단 가변'의 '십이야'가 대학로 창조 콘서트 홀로 장소를 옮겨 재공연에 들어갔다. 지난 공연과 이번 공연의 차이는 제목에 '트랜스'란 말을 첨가하며 새삼 전경화시킨 젠더 바꾸기이다.

셰익스피어의 '십이야'는 초기 근대 사회가 합의하는 가부장 질서의 사회이다. 실제 사회에서 여성은 침묵과 정숙만을 강요받은 채 아버지와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였다. 그 같은 상황에서 셰익스피어의 십이야가 여주인공 바이올라(Viola)를 내세워 글로벌 극장(Globe Theatre)의 관객에게 선사했을 일탈의 즐거움은 참으로 벅찼을 듯 싶다.

거기에는 무대 위 짧은 남녀의 얽히고 설킨 사랑 놀음을 바라보는 관객의 욕망이 질펀하게 묻어있을 법도 하다.

여자를 가장한 소년 배우와 남자배우가 주고받았을 동성애에 관객의 은밀한 시선이 머물렀을 수도 있다.

트랜스 십이야는 2002년과 2003년이 다시 한번 꿈꿔 본 일탈의 무대였다. 셰익스피어의 텍스트의 여성 역은 남자, 남성 역은 여자가 맡으면서 서구 고전을 뒤집는다. 역할이 뒤집어져 바로 선 것은 이 즈음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모습이다. 이들은 열에 들른 남성 인물의 시선에 갇혀버린 수동적인 사람의 객체가 아니다. 한숨에 무너져 내리든지, 서글픈 노래 가락을 떨쳐내고 전의를 다지든지, 여자야말로 사랑을 하는 주체가 된다.

반면, 원전의 바이올라가 바이크역의 남성 인물 유승일로 바뀌면서 무대 위의 젠더 바꾸기는 이 시대의 상상 너머

'트랜스젠더'와 '동성애'가 함축하는 성의 이데올로기에 도전한다. 물론, 그들의 도전은 정치적이거나 전투적이랄 수 없다. 연극 무대가 상식을 전복하며 약속한 즐거움의 유희, 관객은 루즈를 칠하고 하이힐을 신은 채, 가성의 코맹맹이의 소리로 울리와 오시아 사이를 오가는 바이크역 유승일의 여자 놀음에 박장대소한다.

이 공연을 닮았다는 이유는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희극을 "발상하고 있다"는 혹자의 견해에 동조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연극은 끊임없이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하며 젠더의 문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몇 번이고 숙고해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다만, 플롯이 역동적일수록 무대 만들기 행보는 절제와 긴장 속에서 이어

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웃음은 우스개 짓 등 인위적 방식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획된 구도에서 자연스럽게 유발되어야 한다.

남자랑 결혼할 뻔했던 울리와 "여자랑 다름없는 남자"와 결혼하게된 오시아와 바이크가 벌인 사랑 놀음으로 웃음거리는 충분하다.

여기에 쏘냐, 엔시아, 바니걸, 토끼, 아르 등 조연들의 출몰이 시종일관 요란하여 전체적으로 공연이 산만해졌다. 바니걸과 마리스가 역동적인 쇼 무대를 마련한 한편으로 배우들의 연기는 보다 진실해야만 한다. 객석이 가깝고 무대가 작아 연기의 밀도가 한층 드러나 보이기 때문이다.

최영주
영어영문학과 강사·연극평론가

사투리, 대중매체 타고 '주연'으로 뜨다

“고마해라, 마이 목었다 아이기.” 경상도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친구'의 이 대사는 영화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으며 전국적인 유행어가 됐다. 이렇게 시작된 사투리에 대한 관심은 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져 사투리를 문화계의 중요한 코드로 자리잡도록 했다.

대박의 충분조건

사투리 열풍을 불러온 것은 다름 아닌 대중매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투리는 '웃기는 요소'로서만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소 저급하게 표현되던 것이 사실이다.

단순한 어미 변화나 말장난으로 사투리 전체를 대변해왔던 것이다. 사투리를 사용하는 인물이 표준어를 사용하는 인물보다 지적으로 모자라게 그려지는 것은 당연했다. 따라서 이를 접하는 대중들 또한 사투리를 촌스러운 말로 치부하고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이러한 사투리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매체는 영화다. '넌버

3' '친구'의 경상도 사투리,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의 북한 사투리, 그리고 최근 영화인 '선생 김봉두'의 강원도 사투리까지 흥행 영화의 대다수에서 사투리는 공통분모가 되고 있다.

TV 역시 사투리 문화에 있어 빠질 수 없는 매체다. 대부분 코미디 프로그램에 한정됐던 사투리가 드라마 주인공의 언어로 발돋움한 것이 대. 대표적으로 드라마 '명랑 소녀 성공기'가 큰 인기를 끌면서 충청도 사투리가 유행어처럼 퍼졌다. 이러한 사투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개그콘서트' '유평당당 그녀'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한편 얼마 전에는 가수 '강산에'가 사투리 랩이 들어간 앨범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타이틀 곡 '명태'는 '합니데이' '했다이이함메' 등의 합성도 사투리를 선보인다. '와그라노'라는 곡 또한 '와그라노 니 또 와그라노'가 반복되는 랩이 인상적이다. 이외에도 연극,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투리를 만날 수 있다.

왜 열광하는가

이처럼 사투리가 대중적 지지를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표준어에 익숙해진 대중들이 색다른 느낌의 사투리에 호기심을 느낀 것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또한 현대적 감각을 따르면서 각 지역의 문화까지 녹여내고 있다는 점도 요즘 접하는 사투리의 매력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사투리는 어떠한 극적 장치보다 등장인물의 성격과 출신 성향을 쉽고 효율적으로 드러낸다. 그 예로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의 경우 넉넉한 마음씨의 주인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투리 열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먼저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 사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또한 특정 계층과 지역 이미지 고착화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은 제53조에서 '방송은 사투리를 사용하는 인물의 고정유형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투리에 대한 관심이 하나의 문화적 흐름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를 통해 다른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사투리에 대한 관심은 외국 것이 아닌 우리 말, 우리 문화를 모체로 한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지역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문제 해결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대중문화에서 비롯된 사투리 열풍의 지역 통합에 대한 기여는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수확이자 역할이기 때문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온라인 메신저 토크

본토 사람들의 진짜 사투리 이야기

경상도 = 김수호(국문3) - 머리노?
충청도 = 염승숙(문정3) - 워릴 봐유, 날 봐유!
전라도 = 홍유현(문정3) - 거시기~

머리노? : 요즘 매체에서 사투리 많이 쓰던데 본토 사람들이 보기에 어색한 부분이 많아.
거시기~ : 지역별 구분도 없는 것 같아. "거시기 있잖아유~" 처럼.
머리노? : 전라도 '~임' 충청도 '~유' 경상도 '~다'로 구분하지. 요즘 하는 '유평당당 그녀' 경상도 사투리는 정말 어색하더라.
거시기~ : 드라마에 나오는 사투리의 가장 큰 문제는 말투나 억양이야.
워릴 봐유, 날 봐유! : '명랑소녀 성공기'는 어미에 '~유'만 붙였더라구. 어미 변화만 하나까 본토 사람이 보면 어색할 수 밖에 없지. 지역 사투리에서 중요한 건 어미 변화가 아니라 고유의 단어나 말이니까.
머리노? : 리얼리티가 떨어져. 송강호, 조재현, 김시덕처럼 지역 출신 외에는 거의 어색해. 내 생각에는 사투리가 단어, 억양, 문법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발버둥쳐도 영어를 100% 완벽하게 구사하기 어려운 것처럼.
워릴 봐유, 날 봐유! : 매체에서 사투리가 자주 쓰이고 그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 실제로 각 지역에서 지역색이 열어지고 있으니까.
거시기~ : 맞아.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실제로도 그렇게 느려?

워릴 봐유, 날 봐유! : 난 내가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대학 오니까 주위 사람들이 역시 충청도래.
머리노? : 성격이 급한 경상도는 말이 짧아. 발음하기 어려운 건 유하게 바꾸지.
거시기~ : 전라도는 대부분 거시기로 다 통해. 거시기야 거시기해부라~.
머리노? : 우리는 거시기도 귀찮아 하는데. 똘나? 똘나? 똘나.
워릴 봐유, 날 봐유! : 지금 정신이 없어. 다들 왜 이렇게 빨라.
머리노? : 아 역시 답답해. 사투리는 문화에서 비롯된 거니까 지역별로 생활 문화 차이도 클텐데 너희들 지역의 온전 문화는 어때? 경상도는 안전거리 유지는 절대 불가능하고 빨간불일 때도 웬만하면 다 지나가.
거시기~ : 정말? 충청도는 나 서유~ 이라고 서냐?
워릴 봐유, 날 봐유! : 저 만치부터 서지. 클릭션 소리는 가뭇에 콩 나듯이 들려.
거시기~ : 살기 편하겠네.
워릴 봐유, 날 봐유! : 그렇지만은 않아. 아침에 자각했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그러고 계시면...
머리노? : 경상도는 만약 약속시간이 1시면 12시 30분에 미리 나와서 기다리다가 1시 5분이 되면 가버리지.
워릴 봐유, 날 봐유! : 우린 둘 다 1시 20분에 나와.
거시기~ : 우린 1시에 나와서 10분 기다리다가 안 오면 전화하는데.



머리노? : 우린 전화도 안 해. 자기 판에는 35분 기다린 거니까.
거시기~ : 전라도는 뭐든 중간이네. 그래서 그런지 전라도 사람들은 눈치 빠르고 어디 가나 적을 잘하지. 경제적·정치적으로 힘이 없던 탓에 서민층이 많아서 정이 많고 사투리도 구수해.
머리노? : 경상도는 땅이 좀 척박해. 안 빠르면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워릴 봐유, 날 봐유! : 우린 예로부터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교역을 활발히 해 생활이 풍족했네. 그래서 여유로운 것 같아. 양반이라는 말을 잘 쓰는 것도 거시기 나온 건가봐.
머리노? : 할 얘기 다 했으니 이만 끝내자. 난 간다.
거시기~ : 성격 진짜 급하네.
워릴 봐유, 날 봐유! : 벌써 끝났어?
거시기~ : 역시 느려. 순서상 내가 나가는 게 맞지? 같게.
워릴 봐유, 날 봐유! : 나도 나가야겠네.
정리 = 문화부
culture@dongguk.edu

개그콘서트 '생활사투리'에 출연중인 개그맨 이재훈 씨를 만나

“지역감정 뛰어넘은 사투리 열기 후끈 달아오르는구먼~!”



해 좋은 경계 챙겨 "오다 주웠다" 라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이 코너는 최근 각종 유행어를 만들어내며 사투리 열풍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생활사투리 코너에서 전라도를 담당하고 있는 개그맨 이재훈씨를 만나 기획의도와 인기비결,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생활사투리' 코너의 기획의도는.
= 웃음 포인트를 사투리에서 찾자는 것이었다. 은유와 해학, 갑탄사가 어우러진 전라도 사투리와 무뚝뚝하고 직설적인 경상도 사투리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 재미있는 개그가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역차별 등에 의해 생겨난 지역 간 정서가 드러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하는데 애초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 직접 멘트를 정하는데 어려운 점은.
= 난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고 김시덕 씨는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멘트를 정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아이디어 회의시간에 상황만 설정되면 멘트는 10여분 안에 정해진다. 때문에 경상도 멘트에 앞서서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는 부담감

이 더 크다.
- 인기비결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서울 사람들이 갖는 지방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충족시켜 주는 것이 인기비결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방 사람들은 지방색이 묻어나는 고향 말에 흥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토속적인 사투리와는 대조적인 정장 차림, 생활영어 프로그램과 비슷한 진행방식이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일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 현재 강원도, 충청도 등의 팬들이 자기 지역의 사투리도 다뤄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 부담감이 크다. 앞으로도 생활에 밀접하고 재미있는 사투리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메아리

단골영화

▲ '나 홀로 집에, 이연걸의 영문문, 보디가드'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매년 '때'가 되면 텔레비전에서 어김없이 방영되는 단골영화들이란 것이다. 이러한 영화들은 방영되는 초기에는 시청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지만 몇 해가 지나면 시청률은 곧두박질치게 된다.
매년 똑같은 이야기 구성과 스토리에 더 이상 시청자들은 새로운 흥미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 학교측과 총학생회가 지난달 23일 등록금과 관련한 몇 가지 항목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등록금 투쟁이 마무리됐다.
최종 등록금 인상율을 8%로 확정하고 △등록금 인상률 중 1%는 장학금 등 복지 사용 △예산의 일부항목은 회계 년도 중 공개이다. 또한 학부제·구도서관 리모델링 시 학생의 참여를 일정 정도 보

장해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
▲ 그러나 이번 양측의 합의 역시 매년 반복되는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매년 등록금 투쟁의 초점이 됐던 '학생과의 논의를 통한 등록금 책정' '부당한 등록금인상 요인 해소'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부분은 합의문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총학생회측이 앞으로 학교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 후 진행될 대동제 등 당면한 사안들을 고려하면 그 논의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될지는 의문스럽다.
▲ 내년 봄 동악에서 영화가 상영된다면 어떤 것일까.
등록금 책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그 제목은 '나 홀로 등록금 투쟁' 정도가 되지 않을까.

등록금 투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매년 똑같은 내용의 문제제기를 하면 결국 '때'가 되면 으레 하는 단골영화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영화가 방영되면 시청자들은 "또해?"라는 말과 함께 무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학생들의 반응 역시 "또아?"라는 말을 남긴 채 외면하게 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조슬기 대학부장
chof55@dongguk.edu